

## 靈樞·經水에 對한 研究

한미정<sup>1</sup> · 김경식<sup>1</sup> · 손인철<sup>1</sup>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sup>1</sup>

### A Study on the Gyeong Su(經水) of the Young Chu(靈樞)

Mi-Jeong Han<sup>1</sup> · Kyung-Sik Kim<sup>1</sup> · IN-Chul Sohn<sup>1</sup>

Dept. of AM-Meridian & Point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sup>1</sup>

#### Abstract

The phrase 'Gyeong Su' in the twelve *gyeong su*(經水) indicate twelve lower reaches of rivers and lakes which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China. The reason of this chapter called 'twelve *gyeong su*(經水)' is that the *ki*(氣) circulation through twelve meridians in the human body is similar to constant flow of twelve lower reaches of rivers and lakes.

This chapter is divided into five sub chapters, according to its contents as follows,

Chapter 1 deals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welve *gyeong su* and twelve meridians, Chapter 2 deals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universe and human body, Chapter 3 deals with the definite example of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body and universe and *Um-Yang*(陰陽), Chapter 4 deals with most proper acupuncture depth and remain time of acupuncture according to the theory of man, as a microcosm, is connected with the macrocosm(天人相應) and more or less of moxibustion amount, Chapter 5 deals with acupuncture application according to height, age, body shape of patients.

**Key Words** : Gyeong Su, Twelve meridians, Um-Yang, Macrocosm

#### I. 緒 論

本篇의 내용은『甲乙經·卷1·十二經水第7』에, 『黃帝內經太素·卷5·十二水』에 있으며, 『類經·卷9·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에도 기재되어 있다.

“十二經水”에서 經水는 中國 中原地帶에 12개의 하류와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며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澗水, 淮水, 溧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의 12水を 뜻하는 것이고<sup>1)</sup>, 本篇에서 篇名을 “十二經水”라고 한 것은 人體의 十二經脈이 쉬지 않고 循行하는 것이 마치 天地에서 十二經水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sup>2)</sup> 「十二經水」는 내용에 따라 5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第1章은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의 상응관계에 대하여, 第2章은 天地와 人體의 상응관계에 대하여, 第3章은 人體와 天地·陰陽과의 상응관계에 대한

· 교신지자: 손인철, 전북 익산시 신륵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850-6448, Fax. 063-857-6458, E-mail : ichsohn@wonkwang.ac.kr

1) 王辛卯 編 (中醫經典通釋)『黃帝內經』: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2) 裴秉哲『今釋黃帝內經靈樞』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5.

구체적인 예에 대하여, 第4章은 天人相應에 따른 가장 적합한 刺鍼의 깊이와 留鍼시간과 灸의 多少에 대하여, 第5章은 鍼灸施行은 중간 정도의 체형을 기준으로, 患者의 키, 나이, 체형에 따라 鍼灸를 응용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本篇에서 “經脈十二者, 外合於十二經水, 而內屬於五臟六腑。夫十二經水者, 其有大小·深淺·廣狹·遠近各不同; 五臟六腑之高下·大小, 受谷之多少亦不等, 相應奈何?”<sup>3)</sup> 라고 하여, 十二經脈이 밖으로는 十二經水와 相合하며 안으로는 五臟六腑에 이어져 있어서, 十二經脈을 연결 고리로 하는 안과 밖 즉, 五臟六腑와 十二經水가 상응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十二經水는 그 水量的 많고 적음, 깊고 얕음, 폭, 길이가 각기 다르며, 五臟六腑도 높고 낮음, 크기, 음식을 받아들이는 量이 각기 다르다 하여, 兩者가 어떤 상응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夫經水者, 受水而行之; 五臟者, 合神氣魂魄而藏之; 六腑者,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經脈者, 受血而營之。合而以治, 奈何?”<sup>4)</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十二經水는 그 源流에서 물을 받아 들여 바다로 흐르게 하고, 五臟은 神, 氣, 魂, 魄을 저장하며, 六腑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소화시키고 그 精微之氣를 전신으로 퍼트리며, 經脈은 血을 받아들여 이를 운행시키는 것을 말하니, 十二經水와 五臟六腑가 連繫된 十二經脈이 각기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이 계속 순환한다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通하여 상응관계를 설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十二經水라 篇名한 까닭이며, 十二經水가 十二經脈의 原流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十二經水”에 대하여 전적으로 論述한 「十二經水」의 내용이 古文으로 쓰여져 있고, 後代에 계속되는 言及도 없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述者は 各家註를 비교, 참고하여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또한, 十二經脈의 原流로써의 十二經水의 의미를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本篇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내용에 따라서 章節로 나누고,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의 順으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景岳의 『類經』과 郭의 『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을 참조하여 내용에 따라 5章으로 나누고 題目을 달았다.

다. 懸吐는 傳來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식으로 표기하였다.

라. 校勘은 <表.1>의 文獻들을 섭렵하여 조사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비교 참조하여 가장 적합한 訓과 풀을 택하였다.

바. 較註는 <表.2>의 12種 연구 자료의 註釋들을 같은 내용별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註를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사. 直譯은 原文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내용과 較註에서 確정한 註釋의 내용을 따라 함축된 의미까지도 해석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각종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 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 등이며, 脚註는 ‘1), 2), 3)...’의 日련번호로 표시하였고, 脚註 내용에 ‘(00曰)’은 述者가 임의로 첨가한 것이다.

### 2. 研究資料

校勘에 引用한 參考文獻 및 略稱은 <表.1>과 같다

3) 楊維傑 편 『黃帝內經靈樞』서울: 大城出版社: 1985.

4) 楊維傑 편 『黃帝內經靈樞』서울: 大城出版社: 1985.

較註에 引用한 參考文獻 및 略稱은 <表.2>와 같다

<表.1> 校勘에 引用한 參考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備考
1	元至元五年胡氏古林書堂刻本	胡本	原本을 檢할 수가 없어서 『 <b>黃帝內經靈樞校註語釋</b> 』에서 인용하였음
2	明繡谷書林周曰校刻本	周本	
3	明成化十年態氏種德堂刻本	態本	
4	涵芬樓影印明正統道藏書	藏本	
5	明抄本(半頁十行 行二十二字)	明抄二	
6	黃帝內經太素	太素	
7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8	諸病源候論	諸病	
9	備急千金要方	千金	
10	千金翼方	翼方	
11	外臺秘要	外臺	

<表.2> 研究資料

番號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隨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醫經註釋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醫經註釋	張
5	黃元御	清	靈樞懸解	黃
6	楊維傑	1980	黃帝內經靈樞	維傑
7	小獸戶	1988	靈樞講義	小
8	皇甫謐	1993	黃帝甲乙經校釋	皇
9	郭靄春	1993	黃帝內經靈樞校註語釋	語譯
10	裴秉哲	1995	今釋黃帝內經靈樞	今釋
11	河北醫學院	1995	靈樞經校釋	校釋
12	王辛卯	1996	黃帝內經	王

### Ⅲ. 研究內容

#### 第1章.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의 관계

#### 【原文】

黃帝가 問於岐伯 曰經脈十二者는 外合於十二經水요 而內屬於五臟六腑라

夫十二經水者<sup>1)</sup>는 其有大小<sup>2)</sup>深淺과 廣狹遠近在 各不同<sup>3)</sup> 하고 五臟六腑之 高下大小와 受<sup>1)</sup>谷<sup>2)</sup>之多少도 亦不等이나 相應은 奈何요

夫經水者<sup>4)</sup>는 受水而行<sup>3)</sup>之하고 五臟者는 合神氣魂魄而藏之하고 六腑者는 受穀而行之하며 受氣而揚<sup>4)</sup>之하고 經脈者는 受血而營<sup>5)</sup>之하니 合而以治는 奈何요

刺之深淺과 灸之壯<sup>6)</sup>數를 可得聞乎이니까

#### 【校勘】

1) 夫十二經水者~相應奈何: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1)의 “夫十二”이하 40字가 없다.

2) 其有大小: 『太素·卷5·十二水』에는 “其大小”로 되어 있다.

3) 遠近各不同: 原文에는 “遠近各不同”로 되어 있다.

4) 夫經水者: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夫十二經水者”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受: 容納, 받아들일 수
- (2) 谷: 穀也, 곡식 곡
- (3) 行: 運送, 보낼 행
- (4) 揚: 播散, 흩날릴 양
- (5) 營: 周行, 오락가락할 영
- (6) 壯: 醫用艾灸一灼, 한방 뜸뜸 장

#### 【較註】

##### (1) 十二經水

維傑·王·皇·校釋은 “고대 中原地帶에 큰 12個의 하류와 호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澗水, 淮水, 滌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의 12水로 나뉜다. 古人은 하늘과 사람이 상응하는 觀點에서 안으로는 人體의 12經脈과 상응된다.”<sup>5)</sup>고 하였고,

景岳·小는 “사람은 12經脈이 있으니 手足 三陰三陽이고, 天地는 12經水가 있으니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澗水, 淮水, 溧水, 江水, 河水, 濟水, 滄水다. 經脈에 높고 낮음, 적고 많음이 각기 다르고, 經水에 폭, 길이가 다르므로 天地와 더불어 모두가 상응하는 것이다.”<sup>6)</sup>고 하였다.

[2] 夫經水者, 受水而行之, 五臟者, 合神氣魂魄而藏之, 六腑者,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經脈者, 受血而營之.

馬·張·小는 “天地에는 12經水가 있고, 사람의 몸에는 12經脈이 있으니, 12經水는 水量의 많고 적음, 깊고 얕음, 길이, 폭이 다르고, 12經脈은 높고 낮음, 크기, 음식을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니, 兩者의 상응관계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 五臟은 精, 神, 魂, 魄을 저장하므로 神, 氣, 魂, 魄에 相合하여 이를 저장하는 것이라 하고, 六腑는 食物을 소화시켜서 津液을 보내는 것이므로 食物을 받아들여서 이를 소화시키고, 또 食物을 받아들여서 精微之氣로 변화하여이를 전신으로 퍼트리는 것이다. 中焦는 胃中에서 并合하고 上焦의 뒤로 나오니 이곳에서 받아들여진 氣는 糟粕을 나누고, 津液을 薰蒸하며 精微之氣로 변화하여 위로 肺脈에 이르러 변화하여 血이 되어 전신을 營養하므로 經脈은 血을 받아들여서 이를 운행시킨다라고 한다. 臟腑經脈을 12經脈에 配合하여 病을 治療하기 때문에 刺鍼에 깊이가 있고, 灸에 뜸드는 횟수가 있어서, 符合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은 또 어떤 것인가? 岐伯이 말하길 天地를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사람의 몸은 오히려 해부를 통해서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食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크고 작음, 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12經의 氣血의 많고 적음이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니 治療에서 刺鍼의 깊이와 艾灸의 많고 적음이 마땅히 12經水와 더불어 相合한다.”<sup>7)</sup>고 하였고,

景岳·小·校釋은 “經水는 물을 받아서 땅에서 運行하고, 사람의 五臟은 精, 神, 魂, 魄을 저장하고, 六腑는 食物을 받아들여서 精微之氣로 변화하여 전신으로 퍼트린다. 經脈을 江河로 비유하면 血은 水로 비유된다. 江河가 水를 받아 天下를 運轉하는 것처럼 經脈은 血을 받아 전신을 運轉하는 것이니, 經水의 道에 相合하여 治療하는 것은 그 源流의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은 까닭으로 刺鍼의 깊이와 뜸을 뜨는 횟수도 역시 分別해야 한다.”<sup>8)</sup>고 하였고,

維傑은 “江河는 물을 받아 각처를 通行하고, 五臟의 기능은 神, 氣, 魂, 魄등의 정신의 의식 활동과 결합하지만 안으로는 간직하고 밖으로는 表現하는 것이며, 六腑의 작용은 주로 食物을 받아들이고 精液을 滲行하여 食物의 精微之氣를 運轉하여 전신의 內外로 퍼트린다. 經脈은 血液을 運轉하고 전신을 營養하는 통로이다.”<sup>9)</sup>고 하였고,

5) 維傑·王·皇·校釋~ 指古時以中原地帶爲主的十二條河流和湖泊로 分別爲渭海湖汝澗淮溧江河濟漳十二水로 古人은 以天人相應的觀點으로 以內應人體의十二經脈이라

6) 景岳·小~ 人有經脈十二하니 手足之三陰三陽也로 天地有經水十二니 渭渭海湖汝澗淮溧江河漳也라 經脈에 有高下小大不同하고 經水에 有廣狹遠近不同 故로 與天地로 皆相應也라

7) 馬·張·小~ 天地有十二經水하고 人身有十二經脈하니 十二經水者는 有大小深淺遠近廣狹之異로 十二經脈者는 有高下小大受穀多少之殊하여 其相應者必有故也라 且是五臟者는 所以藏精神魂魄者也 故로 曰合神氣魂魄而藏之로 六腑者는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 故로 曰受五穀而行化之하고 又受穀所化精微之氣하여 而揚之於臟腑者也라 中焦는 并胃中하고 出上焦之後하니 此所受氣者는 泌糟粕하고 蒸津液하여 化其精微하여 上注於肺脈하여 及化而爲血以奉生身 故로 曰經脈者는 受血而榮之라 今以臟腑經脈而合之於十二經脈하여 以治其病하니 刺有淺深하고 灸有多貧하니 無不脗合이며 此其故는 又何也로 伯이 言天地難以度量이나 人身猶可剖視니 藏之堅脆와 腑之大小와 穀之多貧와 脈之長短와 血之淸濁와 十二經之氣血多少가 皆有大數니 其治而鍼艾淺深多貧이 宜其盡與十二經水로 相合也라

8) 景岳·小·校釋~ 經水者는 受水而行於地也로 人之五臟者는 所以藏精神魂魄者也로 六腑者는 所以受水穀하여 化其精微之氣하여 而布揚於內外者也라 經脈은 猶江河也하면 血은 猶水也로 江河受水하여 而經營于天下하고 經脈受血而運行于周身하니 合經水之道以施治하면 則其源流遠近이 固自不同하니 而刺之淺深과 灸之壯數도 亦當有所辨也라

楊·語譯은 “‘受水而行之’의 뜻은 12經水는 각기 그 源流로부터 물을 받아서 그것을 바다로 보내므로 ‘受水而行之’다. ‘五臟者, 合神氣魂魄而藏之’의 뜻은 五臟은 五神의 氣와 相合하니, 心은 神에 合하고, 肝은 魂에 合하고, 肺는 魄에 合하고, 脾는 營에 合하며, 腎은 精에 合하니, 五臟은 五精神氣와 相合하여 이를 저장한다. ‘受穀而行之’의 뜻은 胃는 食物을 받아 숙성시켜 小腸으로 보내니 小腸은 盛受라 하고, 小腸은 大腸으로 보내니 大腸은 傳導라 하고, 大腸은 廣腸으로 보내니 廣腸은 轉出이라 한다. 胃의 아래에 別汁은 膀胱의 胞로 나가기, 傳陰下泄이다. 膽은 中精이 되어 저장은 하나 쏟아 버리지 않으니 이는 六腑가 食物을 받아들여서 이를 운행시키는 것이다. ‘受氣而揚之’의 뜻은 五臟이 三焦와 함께 共氣를 하므로 六腑가 氣를 받는다 하고 三焦가 이를 운행하는 근원이 되므로 ‘揚之’다. ‘受血而營之’의 뜻은 營氣는 中焦를 따라서 胃中에서 并合하여 上焦의 뒤로 나오니 氣를 받아서 糟粕을 나누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之氣로 변화하여 위로 肺脈에 이르러 변화하여 血이 되어 12脈中에서 흘러 몸을 영양하므로 부모에게 받은 몸은 귀한 것이며, 넘쳐흘러서 버릴 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營氣는 홀로 12經을 운행하고 經中에

血은 도량의 물과 같으므로 12經은 血을 받아 각기 運營을 한다.”<sup>10)</sup> 고 하였다.

(3) 合而以治, 奈何? 刺之深淺, 灸之壯數, 可得聞乎?

馬·張은 “臟腑經脈을 12經脈에 配合하여 病을 治療하기 때문에 刺鍼에 깊이가 있고, 灸에는 뜸뜨는 횟수가 있어서, 符合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은 또 어떤 것인가? 岐伯이 말하길 天地를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사람의 몸은 오히려 해부를 통해서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食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크고 작음, 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12經의 氣血의 많고 적음이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니 治療에서 刺鍼의 깊이와 艾灸의 많고 적음이 마땅히 12經水와 더불어 相合한다.”<sup>11)</sup>고 하였고,

景岳·小·校釋은 “經水의 道에 相合하여 治療하는 것은 그 源流의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은 까닭으로 刺鍼의 깊이와 뜸을 뜨는 횟수도 역시 分別해야 한다.”<sup>12)</sup>고 하였고,

語譯은 “經水를 經脈에 비유해서 病을 治療함을 일컫는 것이다. 張介賓이 말하길 經脈을 江河로 비유하면 血은 水로 비유된다. 江河가 水를 받아 天下를 運營하는 것처럼 經脈은 血

9) 維傑~ 江河受水而通行於各處하고 五臟의 功能은 結合了 神氣魂魄等 精神意識의 活動하니 是藏於內而表現於外的이고 六腑의 作用은 主要是 受納水穀而滲行精液하여 運化飲食物의 精微之氣하여 布揚於全身內外로 經脈은 是運化行血液而營養全身의 通路라

10) 楊·語譯

- 受水而行之 - 十二經水는 各從其源하니 受水輸之于海 故曰 受水行也라
- 五臟者, 合神氣魂魄而藏之 - 五臟은 合五神之氣하니 心合于神하고 肝合于魂하고 肺合于魄하고 脾合于營하며 腎合于精하니 五臟與五精神氣로 合而藏之也라
- 受穀而行之 - 胃受五穀하여 成熟轉入小腸하니 小腸盛受也요 小腸轉入大腸하니 大腸傳導也요 大腸轉入廣腸하니 廣腸轉出也요 胃下別汁은 出膀胱之胞하니 傳陰下泄也요 膽爲中精이며 有術精三合하니 藏而不瀉하니 此는 卽腑受穀行之者也라
- 受氣而揚之 - 五臟은 與三焦로 共氣 故曰 六腑受氣요 三焦行之爲原 故曰 揚之라
- 受血而營之 - 營氣는 從中焦로 并胃口하여 出上焦之後하니 所謂受氣泌糟粕하고 蒸津液하며 化津液精微하여 注之肺脈之中而爲血流十二脈中하여 以奉生身 故曰 生身之貴는 無過血也라 故曰 營氣獨行于十二經하고 經中血者는 如渠中水也 故曰 十二經受血各營也라

11) 馬·張~ 今以臟腑經脈而合之於十二經脈하여 以治其病이니 刺有淺深하고 灸有多貧하며 無不配合이며 此其故又何也요. 伯이 言天地難以度量이니 人身은 猶可剖視니 藏之堅脆와 腑之大小와 穀之多貧과 脈之長短과 血之淸濁과 十二經之氣血多少가 皆有 大數니 其治而鍼艾淺深多貧이 宜其盡與十二經水로 相合也라

12) 景岳·小·校釋~ 合經水之道以施治는 則其源流遠近이 固自不同하니 而刺之淺深과 灸之壯數도 亦當有所辨也라

을 받아 전신을 운행하는 것이니, 經水의 道에 相合하여 治療하는 것은 그 源流의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은 까닭으로 刺鍼의 깊이와 뜸을 뜨는 횟수도 역시 分別해야 한다.”<sup>13)</sup>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遠近各不同’에 대하여 原文에서는 ‘遠近各不同’로 보았고 藏本·周本·『太素·卷5·十二水』에서는 ‘遠近各不同’으로 보았다. 본문에서 ‘遠近各不同’와 ‘遠近各不同’이 의미적으로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지만, ‘遠近各不同’은 前句의 大·小나 深·淺처럼 대조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遠近各不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其有大小’에 대하여 『太素·卷5·十二水』에서는 ‘其大小’로 보았고, 馬·景岳·張·黃·維傑·小·語譯·今釋은 ‘其有大小’로 보았다. 본문에서 ‘其大小’·‘其有大小’가 의미적으로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지만, ‘十二經水者, 其有大小(=㉠)·深淺·廣狹·遠近各不同(=㉡), 五臟六腑之高下(=㉢)·大小, 受谷之多少亦不等(=㉣)’라 하여 ①·②와 ㉠·㉣가 문장적 贅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많은 註釋家들이 ‘其有大小’를 따르고는 있으나,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其大小’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十二經水’에 대해 維傑·王·皇·校釋·景岳·小는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灑水, 淮水, 溧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의 12水라고 註釋하고 있으며 表現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모두가 12經脈을 연결 고리로 하는 12經水(外)와 五臟六腑(內)의 상응관계, 즉 天地와 人의 相合關係를 설명하려고 12經水를 도입시킨 것

으로 思料된다.

‘夫經水者, 受水而行之, 五臟者, 合神氣魂魄而藏之, 六腑者,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經脈者, 受血而營之.’에 대한 註釋에서 維傑은 ‘江河는 물을 받아 각처를 通行하고, 五臟의 기능은 神, 氣, 魂, 魄등의 정신의 의식 활동과 결합하지만 안으로는 간직하고 밖으로는 표현하는 것이며, 六腑의 작용은 주로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精液을 滲行하여 음식물의 精微之氣를 운행하여 전신의 內外로 퍼트린다. 經脈은 血液을 운행하고 전신을 營養하는 通路이다.’라 하고, 景岳·小·校釋은 ‘經水를 經脈에 비유해서 病을 治療함을 일컫는 것이다. 張介賓이 말하길 經脈을 江河로 비유하면 血은 水로 비유된다. 江河가 水를 받아 天下를 運轉하는 것처럼 經脈은 血을 받아 전신을 運轉하는 것이다.’라 하고, 楊·語譯은 ‘經中에 血은 도랑의 물 같으므로 12經은 血을 받아 각각 運轉을 한다.’라 하였다. 이것은 天地·人의 상응關係를 기본으로 하여 자연계에서는 天(陰)·地(陽)와 天·地의 순환고리인 經水(水)와의 關係, 人體에서는 五臟(陰)·六腑(陽)와 五臟·六腑의 순환고리인 經脈(血)과의 關係를 응용하여 陰·陽, 天·地, 五臟·六腑, 天地·人, 12經水·12經脈, 臟腑經脈·12經脈등의 關係를 설명한다고 思料되어 지므로, 여기서 12經水의 존재는 모든 상응關係의 열쇠라 思料된다.

‘合而以治, 奈何? 刺之深淺, 灸之壯數, 可得聞乎?’에 대한 註釋에서 楊·語譯은 ‘經水를 사용하여 經脈에 비유해서 病을 治療함을 일컫는 것이다’라 하고, 馬·張·小는 ‘臟腑經脈을 12經脈에 配合하여 病을 治療하기 때문에 刺鍼의 깊이가 있고 灸에 뜸뜨는 횟수가 있어서, 符合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이 또 어떤 것인가?’라 하였다. 여기서도 12經水를 응용하여 臟腑經脈을 12經脈에 配合시켰고, 이를 다시 天地·人의 상응關係를 통하여 治病에까지 응용

13) 語譯~ 謂用經水比喻經脈以治病也。張介賓曰經脈猶江河也。血猶水也。江河受水而經營于天下。經脈受血而運行于周身。合經水之道以施治。則其源流遠近。固自不同。而刺之淺深。灸之壯數。亦當有所辨也。

한 것으로 思料되어진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十二經脈은 밖으로는 十二經水와 相合하고, 안으로는 五臟六腑에 이어져 있습니다. 무릇 十二經水는 그 水量의 많고 적음, 깊고 얕음, 폭, 길이가 각기 다르고, 五臟六腑의 높고 낮음, 크기, 음식을 받아들이는 量도 각기 다른데, 兩者는 어떤 상응관계가 있습니까? 무릇 十二經水는 그 源流에서 물을 받아들여 바다로 흐르게 하고, 五臟은 神, 氣, 魂, 魄을 저장하고, 六腑는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를 소화시키며 그 精微之氣를 전신으로 퍼트리고, 經脈은 血을 받아들여서 이를 運行시키니 이들을 결합하여 治療에 運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刺鍼의 깊이와 뜸을 뜨는 횟수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第2章 天地와 人의 관계

【原文】

岐伯이 答曰 善哉라 問也<sup>1)</sup> 시어  
 天至<sup>2)</sup> 高不可度하고 地至<sup>3)</sup> 廣不可量은 此之謂也라  
 且夫人은 生於天地之間<sup>2)(2)</sup>과 六合<sup>3)</sup>之內나 此天之高와 地之廣也는 非人力之所能度<sup>4)</sup> 量<sup>5)</sup> 而至於  
 若夫八尺之士<sup>6)</sup> 皮<sup>7)</sup> 肉은 在此<sup>3)</sup> 에는 外可度<sup>4)</sup> 量<sup>4)(5)</sup> 切<sup>8)</sup> 循<sup>9)</sup> 而得之<sup>5)</sup> 하고 其死에는 可解剖而視之나 其藏<sup>10)</sup> 之堅脆<sup>6)(11)</sup>와 腑之大小와 穀<sup>7)</sup> 之多少와 脈之長短과 血之清濁과 氣之多少와 十二經之<sup>8)</sup> 多血少氣와 與其少血多氣와 與其皆多血氣와 與其皆少血氣가 皆有大<sup>12)</sup> 數<sup>9)(13)</sup> 라  
 其治에 以鍼艾<sup>10)</sup> 로 各調其經氣는 固其常有合<sup>14)</sup> 乎니이다

【校勘】

- 1) 善哉問也 ~ 解剖而視之: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1)의 59字가 없다.
- 2) 人生於天地之間: 『太素·卷5·十二水』에

는 “人生天地之間”으로 되어 있다.

3) 在此: 『太素·卷5·十二水』와 『今釋·十二經水』에 “色脈”으로 되어 있다.

4) 外可度量: 『太素·卷5·十二水』에는 “外生可度量”으로 되어 있고,

『今釋·十二經水』에는 “其生外生可度量”으로 되어 있다.

5) 得之: 『太素·卷5·十二水』에는 “得也”로 되어 있다.

6) 其藏之堅脆: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臟之堅脆”로 되어 있다.

7) 穀: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谷”으로 되어 있다.

8) 經之多血: 『太素·卷5·十二水』에는 “經中, 多血”로 되어 있다.

9) 大數: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定數”로 되어 있다.

10) 鍼艾: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鍼灸”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至: 達到, 지극 지
- (2) 間: 中間, 사이 간
- (3) 六合: 上下·前後·左右의 여섯 방위
- (4) 度: 尺度, 잴 탁
- (5) 量: 測量, 잴 량
- (6) 八尺之士: 人體, 士는 사람에 대한 존칭사
- (7) 皮: 皮膚, 겉 피
- (8) 切: 按捫, 진맥할 절
- (9) 循: 撫摸, 어루만질 순
- (10) 藏: 五臟, 내장 장
- (11) 脆: 易斷易損, 약할 취
- (12) 大: 大概, 대략 대
- (13) 數: 規律, 규율 수
- (14) 合: 應也, 마땅히 합

【較註】

(1) 天至高, 不可度, 地至廣, 不可量, 此之謂也. 且夫人生於天地之間, 六合

之內，此天之 高，地之廣也，非人力之所能度量而至也。 若夫八尺之士，皮肉在此，外可度量切循而得之，其死可解剖而視之

馬·張·小는 “하늘은 지극히 높고, 땅은 지극히 넓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 六合의 안에서 살고 있으니, 역시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形體가 있는 有形의 皮肉筋骨이라면, 살았을 경우는 재어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해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sup>14)</sup>고 하였고,

景岳은 “하늘은 지극히 높고, 땅은 지극히 넓어 측정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하늘과 땅사이, 六合의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 비록 그 규율 역시 天地와 더불어 相合하여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사람은 形體가 있어 그가 살았을 경우는 그 외부를 헤아릴 수 있고, 그가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하여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sup>15)</sup>고 하였고,

楊·小는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으나, 보통사람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그 신체의 해부를 통하여 臟腑를 볼 수 있으니, 天地와 같지 않으므로 알 수 있다.”<sup>16)</sup>고 하였고,

黃은 “사람의 12經脈은 12經水에 相合하니

그 이치가 深奧하다. 하늘은 지극히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극히 넓어 헤아릴 수 없으니, 天地와 더불어 사람이 相合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까닭으로인가? 그러므로 사람이 땅과 하늘의 사이 六合의 안, 막막한 곳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과 땅의 높이와 넓이는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헤아려 알 수 있으니, 살았을 경우는 재어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그 신체의 해부를 통하여 그 臟腑의 형상과 氣血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있으며, 모두가 일반적인 규율이 있다. 즉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추측한다는 것에 經脈이 經水와 함께 그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다.”<sup>17)</sup>고 하였다.

(2) 八尺之士

維傑·今釋은 “인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八尺은 일반인의 키를 가리킨 것이다. 『周禮』「考工記」에 사람의 키가 八尺이다.”<sup>18)</sup>고 하였고,

校釋·語譯은 “八尺은 人體의 키를 가리킨 것이고, 八尺之士는 일반인을 가리킨 것이다. 『周禮』「考工記」에 이르기를 사람의 키가 八尺이다. 『靈樞識』에서는 本經「骨度篇」에 근거하여 사람의 키는 실제적으로 七尺五寸이지만 일반적으로 키를 이야기하면 혹은 七尺, 혹은 八尺이니 대강의 예를 들은 것뿐이다.”<sup>19)</sup>고 하였다.

14) 馬·張·小 ~ 天至高이고 地至廣이니 不可度量者也。 人生於天地六合之內이나 亦猶此天之高와 地之廣은 非人力之所能度量이요 若夫有形之皮肉筋骨이면 外可度量切循하고 內可解剖而視라

15) 景岳 ~ 天至高하고 地至廣하니 難以測度요 人生天地六合之間하니 雖其數亦與天地相合하여 似難測識然이나 而八尺之士는 有形可據하여 其生也可度量其外하고 其死也可解剖是其內라

16) 楊·小 ~ 二儀之大는 人力不可度量이나 人之八尺之身은 生則觀其皮肉거나 切循色脈하고 死則 解其身部하여 視其府藏이니 不同天地 故로 可知也라

17) 黃 ~ 人之十二經脈은 合於十二經水하니 其理玄遠이요 天之至高不可度하고 地之至廣不可量하니 何由而知天地與人相合也。 且夫人生於天地之間, 六合之內, 渺焉中處나 而天地之高廣은 亦非人力之所度量而至也。 若夫人은 則無不可度量而知나 外可切循하고 內可解剖에 其藏府之形象과 氣血之多少는 皆有大數요 即其小者로 以測大者에 則經脈之與經水가 固其常有合也라

18) 維傑·今釋 ~ 就是指人體而言요 八尺은 是泛指人體的長度요 『周禮』考工記에 人長八尺하니라

19) 校釋·語譯 ~ 八尺은 是指人體的長度요 八尺之士는 是泛指人體而言이라  
『周禮』考工記云호대 人長八尺이요  
『靈樞識』按견대 据本經骨度篇호대 人長은 其實七尺五寸이나 而泛言其修에 或云七尺거나 或云八尺하니 舉其大概耳라



(3) 其藏之堅脆, 腑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清濁, 氣之多少,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血氣, 皆有大數. 其治以針艾, 各調其經氣, 固其常有合乎?

楊·語譯은 “‘藏之堅脆’의 뜻은 五臟의 기질적인 견실함과 허약함이고, 張介賓은 藏之堅脆를 「本臟篇」에서 보라고 말한다. ‘腑之大小, 穀之多少’의 뜻은 六腑 용량의 크고 작음과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많고 적음이고, 張介賓은 腑之大小, 穀之多少를 「平人絕穀篇」에서 보라고 말한다. ‘脈之長短’의 뜻은 각기 12經脈의 길이가 같지 않음이고, 張介賓은 脈之長短을 「脈度篇」에서 보라고 말한다. ‘血之清濁’의 뜻은 人體의 血氣에는 輕清과 稠濁의 구별이 있음이다. ‘氣之多少’의 뜻은 五臟六腑와 經脈의 氣에 強弱을 일컫는 것이고, ‘固其常有合乎’의 뜻은 楊上善이 말하길 무릇 사람이 氣와 形을 稟受하는 것에 이미 7종류의 다름이 있어서 鍼灸로써 調養함에 항상 相合하는 것이 있으니, 天地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다르다.”<sup>20)</sup>고 하였고,

馬·景岳·張·小는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크고 작음, 음식물의 많고 적음, 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및 12經中에 血이 많고 氣가 적은지, 氣가 많고 血

이 적은지, 氣와 血이 모두 많은지, 아니면 氣와 血이 모두 적은가 하는데는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다. 일반적인 규율은, 즉 「本臟篇」의 五臟堅脆, 「腸胃篇」의 腑之大小, 「絕穀篇」의 穀之多少, 「脈度篇」의 脈之長短, 「根結篇」의 보통 사람(布衣大人)의 血氣, 「九鍼篇」의 多血少氣, 多氣少血은 모두 일반적 규율이 있다. 鍼灸로써 치료하는 것은 각각의 經氣를 조절하는 것이니 항상 규율에 相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래 문장에 6分, 5分, 10呼, 7呼 나가서 2呼, 1呼에 이르기까지, 이는 手足陰陽이 모두 규율에 相合함이 있다는 것이다. 前2章에서 12經脈이 天의 六氣에 상응하는 것과 五臟六腑가 五音, 六律, 五色, 五時에 상응하는 것을 論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臟腑經脈이 땅의 十二經水에 상응함을 論하는 것은 사람과 天地의 道가 相合은 되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sup>21)</sup>고 하였고

皇은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크고 작음,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많고 적음, 經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및 12經脈中에 血이 많고 氣가 적은지, 血이 적고 氣가 많은지, 氣와 血이 모두 많은지, 아니면 氣와 血이 모두 적은가 하는 것에는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다. 鍼灸치료를 할 때에 각각에 經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刺鍼의 깊이와 뜸뜨

20) 楊·語譯

- 藏之堅脆 - 五臟器質의 堅韌與脆弱이라 張介賓이 曰藏之堅脆는 則見于「本臟篇」이라
- 腑之大小, 穀之多少 - 六腑容量의 大小와 受盛水穀의 多少라 張介賓이 曰腑之大小와 穀之多少는 則見于「平人絕穀篇」이라
- 脈之長短 - 各條經脈의 不同長度라 張介賓이 曰脈之長短은 則見于「脈度篇」이라
- 血之淸濁 - 人體血氣에는 有輕清與稠濁의 區別하나라
- 氣之多少 - 謂臟腑經脈之氣의 強弱이라
- 固其常有合乎 - 楊上善이 曰夫人稟氣受形에 既有七種不同하여 以鍼灸調養에 固有常契하나 不可同乎天地無度量也라

21) 馬·景岳·張·小~

其於藏之堅脆와 腑之大小와 穀之多少와 脈之長短과 血之淸濁과 氣之多少와 十二經之多血少氣와 多氣少血과 血氣皆多와 血氣皆少에 皆有大數라 大數者는 卽本臟篇之五臟堅脆와 腸胃篇腑之大小와 絕穀篇穀之多少와 脈度篇脈之長短와 根結篇布衣大人之血氣와 九鍼篇之多血少氣多氣少血에 皆有數推之라 其治以鍼灸는 調其經氣하나 固其常有合於數者는 卽下文之六分五分과 十呼七呼와 以至於二呼一呼까지 此는 手足陰陽皆有合於數也라 按前二章論十二經脈應天之六氣과 五臟六腑應五音六律五色五時에 此復論臟腑經脈이 應地之十二經水는 是人合天地之道나 而不可度量者也라

는 횡수를 적절하게 운용을 하여 經氣를 조절시킨다. 오직 이래야만 비로소 각각에 經脈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사람과 天地陰陽이 상응하는 道理이니, 세심하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sup>22)</sup>고 하였고,

維傑은 “『素問』「血氣形志篇」에서 ‘太陽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少陽은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며, 陽明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많으며, 少陰은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며, 厥陰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太陰은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다.’라고 한다. 이것은 12 經脈의 氣血에 많고 적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니, 비록 그것이 실질적인 氣와 血의 분량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古人들이 생각해 낸 이런 추상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補는 적게, 瀉는 많이, 적절한 治療와 禁忌등을 임상에 적용하니 대단한 실용적 가치가 있다.”<sup>23)</sup>고 하였고,

馬·景岳·張·小는 “‘其藏之堅脆’의 뜻은 馬蒔가 「本臟篇」에서 肝이 堅實하면 五臟이 편안하고 傷하기 어렵고, 肝이 허약하면 消癰病이 잘 들고 傷하기 쉽다라고 말하고, ‘腑之大小’의 뜻은 馬蒔가 「平人絕穀篇」에서 胃의 크기는 2尺 5寸, 「腸胃篇」에서 胃의 길이는 1

尺 5寸이다라고 말하고, ‘穀之多少’의 뜻은 馬蒔가 「平人絕穀篇」에서 胃는 3斗 5升의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脈之長短’의 뜻은 馬蒔가 「脈度篇」에서 脈의 길이는 16丈 2尺의 숫자다라고 말하고, ‘血之清濁’의 뜻은 馬蒔가 「根結篇」에서 보통 사람과 王公大人, 血食之君은 氣血循行의 거칠음과 매끄러움이 있다고 말하고, ‘氣之多少’의 뜻은 張志聰이 「九鍼篇」에 多血少氣와 多氣少血을 말하였다.’ 또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血氣’의 뜻은 馬蒔가 『素問』에 「血氣形志篇」에서 ‘太陽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少陽은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며, 陽明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많으며, 少陰은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며, 厥陰은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太陰은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다.’라고 말하고, ‘皆有大數. 其治以針艾, 各調其經氣, 固其常有合乎’의 뜻은 張志聰이 鍼이나 뜸으로써 疾病을 치료하는 것은 각각에 經氣를 조절하는 것이니 항상 規律에 相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즉, 아래 문장에 6分, 5分, 10呼, 7呼 나아가 2呼, 1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手足陰陽이 모두 規律에 相合함이 있다는 것이다.”<sup>24)</sup>고 하였다.

22) 皇 ~ 五臟의 堅固與脆弱라 六腑의 大小和 受納水穀의 多少와 經脈의 長短與 血의 清濁氣의 多少와 十二經中之 多血少氣 或少血多氣 血氣皆多 或血氣皆少는 都有定數요 用鍼灸治療時에 應根據各個經脈의 長短과 血之清濁과 以及 氣血多少等特點하여 適當의 運用鍼刺의 深度和 艾灸의 壯數하여 以調和其經氣요 惟有這樣이라 才能符合于各經의 具體情況이다 以上所說의 是 人與天地陰陽相應의 道理니 不可不審察啊요

23) 維傑 ~ 『素問』血氣形志篇에 太陽은 常多血少氣하며 少陽은 常少血多氣하며 陽明은 常多氣多血하며 少陰은 少血多氣하며 厥陰은 常多血少氣하며 太陰은 常多氣少血이라 這裏所指出十二經氣血多少의 差別이니 雖不是指之實質의 氣和 血의 分量而言이나 但根據古人所發現의 這一抽象原則하여 在臨床上用以作爲 補少瀉多及 治療의 宜和 忌等等이니 却有很大的 實用價値라

24) 馬·景岳·張·小

○ 其藏之堅脆 - 馬蒔가 日本臟篇에 有 肝堅則藏安難傷하고 肝脆則善病消癰易傷等語하니라

○ 腑之大小 - 馬蒔가 曰 平人絕穀篇에 有 胃大二尺五寸等語하고 腸胃篇에 有 胃長一尺五寸等語하니라

○ 穀之多少 - 馬蒔가 曰 平人絕穀篇에 有 胃受水穀三斗五升等語하니라

○ 脈之長短 - 馬蒔가 曰 脈度篇에 有 脈長一十六丈二尺之數라

○ 血之清濁 - 馬蒔가 曰 根結篇에 有 布衣匹夫之士와 王公大人血食之君은 氣血澀滑之異하니라

○ 氣之多少 - 張志聰이 曰 九鍼篇之多血少氣多氣少血이라

○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皆多血氣, 其皆少血氣馬蒔가 曰 『素問』血氣形志論에 云 太陽은 常多血少氣하고 少陽은 常少血多氣하고 陽明은 常多氣多血하고 少陰은 常少血多氣하고 厥陰은 常多血少氣하고 太陰은 多氣少血이라

○ 皆有大數, 其治以針艾, 各調其經氣, 固其常有合乎

張志聰이 曰 其治以針艾는 調其經氣하니 固其常有合於數者는 卽下文之 六分五分과 十呼七呼와 以至於 二呼一呼까지 此는 手足陰陽皆有合于數也라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皮肉在此’에 대하여 『太素·卷5·十二水』·今釋은 ‘皮肉色脈’으로 보았고, 『甲乙·卷1·十二經水第7』·馬·小·張·維傑·語譯·王은 ‘皮肉在此’로 보았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많은 註釋家들이 『甲乙·卷1·十二經水第7』을 따르고 있더라도 楊·小가 註釋에서 ‘皮肉在此’를 ‘生則觀其皮肉·切循色脈’으로 보는 것처럼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皮肉色脈’으로 보아야 옳다고 思料된다.

‘外可度量’에 대하여 『太素·卷5·十二水』에서는 ‘外生可度量’으로 보았고, 馬·小·張·維傑·語譯·王은 ‘外可度量’로 보았다. 본문에서 ‘外可度量’과 ‘外生可度量’은 모두 前後文句에서 무리는 없지만 下句의 ‘其死可解剖’와 문장적·덧구가 되어야 하므로, 많은 註釋家들이 『甲乙·卷1·十二經水第7』의 ‘外可度量’을 따르고는 있으나,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外生可度量’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大數’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서는 ‘定數’로 보았고, 『太素·卷5·十二水』·馬·景岳·張·黃·維傑·小·皇·語譯은 ‘大數’로 보았다. 본문에서 ‘大數’의 ‘大’는 ‘대략’의 의미이고, ‘定數’의 ‘定’은 ‘규정된’의 의미이므로 ‘大數’·‘定數’는 모두 前後文句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兩者가 모두 옳다고 思料되어 지나, 註釋家들이 ‘大數’만을 言及하니 ‘定數’의 言及도 고려할 만 하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固其常有合乎?’에 대한 註釋에 있어서 馬·景岳·張·小는 ‘是人合天地之道, 而不可度量者也.’(=①)라 하고, 楊·語譯은 ‘固有常契, 不可同乎天地無度量也’(=②)라 하고, 皇은 ‘是人與天地陰陽相應的道理, 不可不審察啊!’(=③)라 했다. 여기서 ①의 뜻은 ‘없는 것이다’이고, ②의 뜻은 ‘없다는 것과 같을 수 없다’이며, ③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의 뜻이다. 즉 ①

의 뜻은 부정의 의미를, ②·③의 뜻은 어느 정도의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兩者가 모두 옳다고 思料된다. ①의 뜻은 天과 人이 상응관계이지만 6分, 5分, 2呼 등의 數值를 거론하여 그 數值에 꼭 들어맞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②·③의 뜻은 數值의 거론 없이 天과 人이 상응관계이므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者 모두가 옳다는 것이다.

‘八尺之士’에 대한 註釋에 있어서 維傑·今釋은 ‘人體而言·八尺, 是泛指人體的長度·周禮考工記·人長八尺.’라 하고, 校釋·語譯은 ‘八尺是指人體的長度·八尺之士是泛指人體而言~ 人長其實七尺五寸, 而泛言其修(키 수), 或云七尺, 或云八尺, 舉其大概耳.’라 했다. 여기서 ‘八尺’은 1尺×8=1m의 1/3×8=8尺이라는 한정된 數值의 개념이 아니고, 古人들의 과장된 표현의 하나로서, ‘대략적인 보통 사람의 키’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八尺之士’는 ‘보통 사람의 몸’·즉 ‘人體’를 말한 것으로 思料된다.

【直譯】

岐伯이 대답하기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극히 넓어 헤아릴 수 없다 함은 이를 말함입니다. 무릇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 六合의 안에는 살고 있으나, 이들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릇 보통 사람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으니,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크고 작음, 水穀의 많고 적음, 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및 十二經脈 중에 血이 많고 氣가 적은지, 血이 적고 氣가 많은지, 氣와 血이 모두 많은지 아니면 氣血이 모두 적은가 하는 데에는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鍼이나 뜸으로써 疾病을 治療할 때는 각각에 經氣를 조절하는 것이며, 본래부터 그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第3章. 天地 · 陰陽과 人的 相應實例

第1節. 天地와 人的 相應

【原文】

黃帝曰<sup>1)</sup>余聞之<sup>(1)</sup>에 快於耳나 不解於心나 願卒<sup>(1)</sup>聞之<sup>(1)</sup> 하나이다

岐伯이 答曰 此는 人之所以參<sup>(2)</sup> 天地<sup>(2)</sup> 而應陰陽也나 不可不察<sup>(3)</sup> 이라

足太陽은 外合淸<sup>(3)</sup> 水<sup>(4)</sup> 하나 內屬於膀胱<sup>(5)</sup> 하나 而通水道焉이오

足少陽은 外合於渭<sup>(4)</sup> 水 하나 內屬於膽이오

足陽明은 外合於海<sup>(5)</sup> 水 하나 內屬於胃요

足太陰은 外合於湖<sup>(6)</sup> 水 하나 內屬於脾요

足少陰은 外合於汝<sup>(7)</sup> 水 하나 內屬於腎이오

足厥陰은 外合於澗<sup>(8)</sup> 水 하나 內屬於肝이오

手太陽은 外合於淮<sup>(9)</sup> 水 하나 內屬於小腸<sup>(7)</sup> 하나 而水道出焉<sup>(8)</sup> 이오

手少陽은 外合於深<sup>(10)</sup> 水 하나 內屬於三焦<sup>(9)</sup> 요

手陽明은 外合於江<sup>(11)</sup> 水 하나 內屬於大腸이오

手太陰은 外合於河<sup>(12)</sup> 水 하나 內屬於肺요

手少陰은 外合於濟<sup>(13)</sup> 水 하나 內屬於心이오

手心主는 外合於澹<sup>(14)</sup> 水 하나 內屬於心包 하나이다

【校勘】

1) 黃帝曰~答曰:『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1)의 21字가 없다

2) 所以參天地:『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參天地”로 되어 있다.

3) 不察:『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不審察之也”로 되어 있다.

4) 淸水:『甲乙·卷1·十二經水第7』과 態本, 周本, 藏本, 明抄本에는 “于淸水”로 되어 있고, 『太素·卷5·十二水』에는 “於淸水”로 되어 있다.

5) 於:『甲乙·卷1·十二經水第7』과 態本, 周本, 藏本, 明抄本에는 “內屬於膀胱~內屬於心包”까지에서 “於”는 모두 “于”로 되어 있다.

6) 澗水:『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瀉水”로 되어 있다.

7) 於小腸 而水道出焉:『甲乙·卷1·十二經水第7』과 胡本, 態本, 周本, 明抄本에는 “于小腸”으로 되어 있다.

8) 而水道出焉:『太素·卷5·十二水』에는 “而通水道焉”으로 되어 있다.

9) 三焦:『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三焦, 而水道出焉”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卒: 盡也, 다할 진
- (2) 參: 考檢, 헤아릴 참
- (3) 淸: 淸水, 물 이름 칭
- (4) 渭: 渭河, 물 이름 위
- (5) 海: 海水, 바닷물 해
- (6) 湖: 湖水, 호수 호
- (7) 汝: 汝水, 물 이름 여
- (8) 澗: 澗水, 물 이름 승
- (9) 淮: 淮水, 물 이름 회
- (10) 深: 深水, 물 이름 탐
- (11) 江: 長江, 물 이름 강
- (12) 河: 黃河, 물 이름 하
- (13) 濟: 濟水, 물 이름 제
- (14) 澹: 澹河, 물 이름 장

【較註】

(1) 快於耳不解於心

楊은 “快於耳는 천박한 지식이고, 解於心은 깊은 지식이다.”<sup>25)</sup>고 하였고,

小는 “그 연유를 아는 것과 그 연유한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楊上善이 快於耳는 천박한 지식이고, 解於心은 깊은 지식이라 하니 內心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깊이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sup>26)</sup>고 하였고,

校釋은 “快於耳는 천박한 지식이고, 解於心은 깊은 지식이라 하니, 內心으로 이해가 안된

25) 楊~ 快於耳는 淺知也요 解於心은 深識也라

26) 小~ 知其然而不知其所以然이라

楊上善이 曰快于耳는 淺知也요 解于心은 深識也라하니 不解于心은 不能深入認識이라

다는 것은 곧 철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sup>27)</sup> 고 하였다.

- (2) 足太陽外合淸水,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 足少陽外合於渭水, 內屬於膽. 足陽明外合於海水內屬於胃. 足太陰外合於湖水, 內屬於脾. 足少陰外合於汝水, 內屬於腎. 足厥陰外合於澗水, 內屬於肝. 手太陽外合於淮水, 內屬於小腸, 而水道出焉. 手少陽外合於溧水, 內屬於三焦. 手陽明外合於江水, 內屬於大腸. 手太陰外合於河水, 內屬於肺. 手少陰外合於濟水, 內屬於心. 手心主外合於澗水, 內屬於心包.

景岳·小는 “아래에서 經水를 經脈으로 配合하는데는 모두 그 象에 연유하여 血氣의 盛衰를 分別한다. 足太陽經이 안으로는 膀胱에 이어져 있고, 血이 많고, 氣가 적으므로 밖으로는 淸水에 配合되어 있다. 淸水는 大清河와 小清河니 『輿地圖志』에서 말하길 大清河는 濟水의 옛수라고 兗州府의 東北쪽으로부터 長淸等縣으로 흘러 나가서 利津等에 경계를 통과하여 海水로 들어간다. 小清河는 溧水라고도 하고, 濟南府의 鈞突泉에서 발원하여 章丘를 지나서 溧河의 물을 받아들여서, 新城을 통과하여 海水로 들어간다. 禹貢이 말하길 濟水와 溧水에서 떠서 河水로 도달하는 것은 반드시 河水이니 지금 山東省의 濟南府다. 足少陽經은 안으로 膽에 이어져 있고, 血이 적고 氣가 많으므로 밖으로는 渭水에 配合되어 있다. 『地志』에서 渭水는 隴西郡의 渭源縣에 西南쪽 鳥鼠山에서 발원하여서 同州에 이르러 河水로 들어가니, 지금의 錄陝西省이다. 渭水의 源發地는 臨洮府에 속한다. 同州는 西安府에 속한다. 足陽明經은 안으로는 胃에 이어져 있으며 항상 氣가 많고 血도 많아서 五臟六腑의 바다가 되므로 밖으로는 海水와 配合된다. 바다가 땅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고, 땅은 바다의 가운데에 있

으니 海水가 주위를 흐르는 것은 이것 하나일 뿐이다. 지금 四海라 부르는 것은 東, 西, 南, 北으로 이를 나누어 말한 것이므로 東은 渤海, 南은 漲海, 西는 青海, 北은 瀚海라고 부른다. 足太陰經은 안으로는 脾와 이어져 있고,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으니 「九鍼論」에서 이르기를 血이 많고 氣가 적으므로 밖으로는 湖水와 配合되며, 湖는 즉, 五湖이니 彭蠡, 洞庭, 巢湖, 太湖, 鑑湖를 일컫는다. 五湖는 모두 東南쪽에 있으니 『周禮職』의 方氏 揚州澤箴가 具區라 말한다. 足少陰經은 안으로는 腎과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므로 밖으로는 汝水와 配合된다. 汝水는 汝州의 天息山에서 원발하여, 西平上蔡의 汝陽等縣을 통과하여 淮水로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의 汝寧府에 속한다. 足厥陰經은 안으로는 肝과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므로 밖으로는 澗水와 配合된다. 澗水는 즉, 澗水로 생각되어지며, 新安縣의 東北쪽의 白石山에서 발원하여 澗池와 新安의 사이를 통과하여 洛水로 들어가고, 洛水는 河水로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의 河南府에 속한다. 手太陽經은 안으로는 小腸과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므로 밖으로는 淮水와 配合된다. 淮水는 唐州의 桐栢山에서 발원하여서 繞徐揚의 東쪽 경계에서 海水로 들어가니 지금 河南省의 南陽府에 속한다. 手少陽經은 안으로는 三焦와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작고 氣가 많으므로 밖으로는 溧水와 配合된다. 溧水는 章丘의 長白山에서 발원하여 小清河로 들어가서 海水로 歸屬되니 지금의 山東省의 濟南府에 속한다. 手陽明經은 안으로는 大腸과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많고 氣가 많으므로 밖으로는 江水와 配合된다. 江水는 西蜀의 岷山에서 발원하니 지금의 四川省의 成都府의 茂州에 속한다. 그 길이가 萬里고 吳地에 이르러 海水로 들어가니, 이는 곧 南과 北의 경계가 된다. 手太陰經은 안으로는 肺와 이어져 있고,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으며, 肺는 臟腑의 덮개가 되니, 가장 높이 위치하여 百脈을 만나

27) 校釋~『太素』卷五十二水注에 快于耳는 淺知也, 解于心은 深識也라 하니 不解于心은 不能透徹地了解라

므로 밖으로는 河水와 配合된다. 河水는 2個의 발원지가 있어서 하나는 葱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崑崙에서 나오니 東注의 浦昌海에서 합류하여 땅속으로 스며들며 지나간다. 南쪽에 積石에서 발원하여서 中國으로 들어간다. 일설에 黃河는 星宿海에서 발원하여 中國의 西南쪽에 있으니 곧게 四川의 馬湖府에 正西쪽 3000리 쯤이다. 雲南의 麗江府에 西北쪽 1500리 쯤이다. 지금은 모두 西쪽과 東쪽으로부터 흘러 20일을 지나서 崑崙에 이르고, 崑崙의 西南쪽을 둘러 엮어, 東北쪽으로으로 꺾어지고, 또 西北쪽으로 꺾어지고, 또 東北쪽으로 회전하여 10일을 지나면, 雲中의 九原을 지나서 大寧에 이르러 비로소 中國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四瀆의 宗이 된다. 手少陰經은 안으로는 心과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적고 氣가 많으므로 밖으로는

濟水와 配合된다. 江水는 王屋山の 아래쪽에 沅水라 일컫는 곳에서 발원한다. 나타났다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흐르고 다시 나와서 濟水가 된다. 濟水는 河水를 끌고 흐르나 混濁하지 않고 맑으므로, 또 淸濟라고 부른다. 흐름이 비록 미약하여 홀로이므로 四瀆 가운데 하나이니 지금은 河南省의 懷慶府에 濟源縣에 속한다. 手厥陰經은 안으로는 心主와 이어져 있고,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므로 밖으로는 滄水와 配合된다. 滄水는 2個가 있으니 그 하나는 沽縣의 윗마을 大眼谷에서 발원하니 淸漳이라 부른다. 하나는 長子縣의 윗마을 發鳩山에서 발원하니 濁漳이라 부르니 모두 河水로 들어간다. 지금의 隸山西省이니 沽縣은 樂平縣이고 太原府에 속한다. 長子縣은 潞安府에 속한다.<sup>28)</sup>고 하였고,

28) 景岳 · 小

- 足太陽外合淸水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 - 此下以經脈配經水是 皆欲因其象하여 以辨血氣之盛衰也. 足太陽經은 內屬膀胱하고 是經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淸水라 按淸水는 卽大小淸河니 輿地圖志에 曰大淸河는 卽濟水之故道이고 自兗州府東北으로 流出長淸等縣하여 由利津等界入海. 小淸河는 一名溧水이고 源發濟南府的突泉하여 經章丘하여 受溧河之水하여 由新城入海라 禹貢에 曰浮於濟溧達於河者는 必此河也니 今俱屬山東省濟南府라
- 足少陽外合於渭水, 內屬於膽 - 足少陽經은 內屬於膽하고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渭水라 按地志에 渭水는 出隴西郡渭源縣西南鳥鼠山하여 至同州入河하니 今俱隸陝西省이요 渭源은 屬臨洮府. 同州屬西安府라
- 足陽明外合於海水內屬於胃 - 足陽明經은 內屬於胃하고 常多氣多血하니 爲五臟六腑之海故로 外合於海水라 按輿地 海包地外하고 地在海中하여 海水周流는 是一而已라 今云四海者는 以東西南北而分言之也 故로 東曰渤海. 南曰漲海. 西曰青海. 北曰瀚海라
- 足太陰外合於湖水, 內屬於脾 - 足太陰經은 內屬於脾하고 常多氣少血하니 九鍼論에 云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湖水니 湖는 卽五湖. 謂彭蠡洞庭巢湖太湖鑑湖也라 五湖는 皆在東南하니 『周禮職』方氏揚州澤箴曰具區라
- 足少陰外合於汝水, 內屬於腎 - 足少陰經은 內屬於腎하고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汝水라 按汝水는 源出汝州天息山하여 由西平上蔡汝陽等縣入淮하니 今屬河南省汝寧府라
- 足厥陰外合於澠水, 內屬於肝 - 足厥陰經은 內屬於肝하고 常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澠水라 按澠水는 卽澗水니 源出新安縣東北白石山하여 由澠池新安之間하여 入洛而洛入於河也니 今屬河南省河南府라
- 手太陽外合於淮水, 內屬於小腸, 而水道出焉 - 手太陽經은 內屬小腸하고 常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淮水라 按淮水는 出唐州桐栢山繞徐揚之界하여 東入於海하니 今屬河南省南陽府. 改名唐縣이다
- 手少陽外合於溧水, 內屬於三焦 - 手少陽經은 內屬三焦하고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溧水라 按溧水는 源出章丘長白山하여 入小淸河歸海니 今屬山東省濟南府라
- 手陽明外合於江水, 內屬於大腸 - 手陽明經은 內屬大腸하고 常多血多氣 故로 外合於江水라 按江源은 出西蜀之岷山하니 今屬四川省成都府茂州라 其長萬里. 至吳地入海니 此卽所以限南北也라
- 手太陰外合於河水, 內屬於肺 - 手太陰經은 內屬於肺하고 常多氣少血하여 肺爲藏府之蓋니 其經最高而朝百脈 故로 外合於河水라 按河有兩源하여 一出葱嶺하고 一出於闕하니 合流東注浦昌海하여 潛行地中하여 南出積石以入中國이라 一說에 黃河는 源出星宿海하여 在中國西南하니 直四川馬湖府之正西三千餘里. 雲南麗江府之西北一千五百餘里니 今諸流自西而東行二十日至崑崙하고 繞崑崙之西南하여 折而東北하고

楊·小·皇은 “清水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아니니, 『太素·十二水注』에서 清水는 魏郡의 內黃縣에서 발원하여 清泉縣을 지나서 東北쪽으로 흘러 河水로 들어가고, 張介賓은 山東省의 경계의 안에 있는 大清河와 小清河로 생각한다. 『辭海』에서 清水는 甘肅省의 경계에 있으니 清水縣에서 발원한다고 생각한다. ‘而通水道焉’의 뜻은 膀胱은 水府가 되니, 津液을 저장하고 氣化하여서 내보내므로 水道를 능히 通調한다. 渭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隴西의 首陽縣에 있는 鳥鼠의 同穴山에서 발원하여 東北쪽으로 華陰에 이르러 河水로 들어간다. 湖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湖’는 마땅히 ‘雩’가 되며, 雩水는 代郡의 鹹城縣에서 발원하여 東쪽으로 흘러 9개의 郡통과하여 1340리를 지나니 并州川이 된다. 『一解』에서 湖는 마땅히 沽가 되니 沽水는 漁陽郡에서 발원하여 東南쪽으로 海水로 들어가니 750리를 지나간다.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서 湖水는 즉, 五湖니 彭蠡, 洞庭, 巢湖, 太湖, 鑑湖라고 일컫는다. 五湖는 모두 東南쪽에 있다. 瀉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武郡의 番冢山에서 발원하여 東쪽으로 흘러 江水로 들어가니 陝西省의 澠縣에 경계에 있다.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이 漢水다. 汝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汝南郡의 定陵縣에 高陵山에서 발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淮水로 들어

간다. 江水는 長江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淮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南陽郡의 平武縣에 桐栢山에서 발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海水로 들어간다. 溧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平原郡에서 발원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海水로 들어간다. 또한, 河水의 안쪽으로도 溧水가 있으니 王屋山에 발원하여 東南쪽으로 河水로 들어간다.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서 溧水는 章丘의 長白山에서 발원하여 小清河로 들어가 海水로 歸屬되니 지금의 山東省의 濟南府에 속한다. 河水는 黃河다. 漳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清漳水니 沽縣의 뒷마을 西北쪽에 있는 少山에서 발원하여 東쪽으로 흘러 濁漳과 합해져 海水로 들어가니, 일설에는 濁漳이라 한다. 濁漳은 長子縣의 뒷마을 西쪽 發鳩山에서 발원하여 東쪽으로 흘러 海水로 들어간다. 濟水는 『太素·十二水注』에서 河水의 東쪽 恒縣에서 발원하여서 王屋山에 이르러 東北쪽으로 흘러 河水로 들어간다.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서 江水는 王屋山の 아래쪽에 沆水라 일컫는 곳에서 발원한다. 나타났다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흐르고 다시 나와서 濟水가 된다. 濟水는 河水를 끌고 흐르나 混濁하지 않고 맑으므로, 또 清濟라고 부른다. 흐름이 비록 미약하여 홀로이므로 四瀆 가운데 하나이니 지금은 河南省의 懷慶府에 濟源縣에 속한다.”<sup>29)</sup>고 하였

又折而西北하고 又轉而東北하여 又行而十餘日이던 歷雲中九原하여 至大寧하여 始入中國하니 是爲四瀆之宗이다

- 手少陰外合於濟水, 內屬於心 - 手少陰經은 內屬於心하고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濟水라 按江源은 初發王屋山下니 曰沆水요 旣見而伏하고 復出爲濟요 濟截河而流나 不混其清故로 又曰清濟요 流雖微而獨尊 故로 居四瀆之一이니 今屬河南省懷慶府濟源縣이다
- 手心主外合於漳水, 內屬於心包 - 手厥陰經은 內屬心主하고 常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漳水라 按漳水有二하니 一出上黨沽縣大眼谷曰清漳이요 一出上黨長子縣發鳩山曰濁漳이니 皆入於河라 今俱錄山西省이니 沽縣即樂平縣은 屬太原府요 長子縣은 屬潞安府라

29) 楊·小·皇

- 清水는 對清水의 說法不一하니 『太素』十二水注에 清水는 出魏郡內黃縣하여 經清泉縣하여 東北流入河也 하고 張介賓은 認爲是大 小清河(在山東省境內)요 『辭海』는 認爲是在甘肅省境이니 源出清水縣이라하니라
- 而通水道焉 - 膀胱爲水府니 主藏津液하고 受氣化而出 故로 能通調水道라
- 渭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渭水는 出隴西 首陽縣 鳥鼠同穴山하여 東北至華陰하여 入河라
- 湖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湖當爲雩니 雩水出代郡鹹城縣하여 東流過郡九行千三百四十里하니 爲并州川이라 『一解』에 云湖當爲沽니 沽水는 出漁陽郡하여 東南入海니 行七百五十里라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 湖는 卽五湖니 謂彭蠡와 洞庭과 巢湖와 太湖와 鑑湖也요 五湖는 皆在東南이라
- 瀉水는 『太素』十二水注에 瀉水는 出武郡番冢山하여 東流入江也라하니 在陝西省澠縣境이요 其下流는 卽爲漢水라

고,

馬·張·小는 “무릇 三陰三陽은 하늘의 六氣와 相合하며 手足經脈은 땅의 經水와 상응하고, 12經脈은 밖으로는 六氣와 相合하고, 안으로는 臟腑와 이어져 있으니, 따라서 手足의 三陰三陽은 밖으로는 12經水와 相合하고, 12經水는 또 안으로 五臟六腑에 이어져 있다. 이것은 사람이 天地에 相合하며 陰陽에 상응하는 것이니 淸水와 黃河는 淮水에서 合해져 나뉘어 흘러 淸水와 河水가 되고 肺는 하늘에 속하며 氣를 주관하고, 膀胱은 津液의 腑가 되어, 氣化하여 내보낸다. 六腑가 모두 濁하나, 膀胱의 水가 홀로 淸하므로, 足太陽이 밖으로는 淸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膀胱에 이어져 水道를 通하게 한다. 渭水는 雍州에서 발원하여 涇, 汭, 漆, 沮, 瀉水와 合하여지지만 渭水는 홀로 淸하다. 무릇 陽은 모두 濁한데 膽이 中精의 腑가 되니, 홀로 그 淸함을 받으므로 足少陽은 밖으로는 渭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膽과 이어져 있다. 海水는 땅 바깥으로 넓은 바다이고, 땅이 海水의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며 陽明은 中土에 머물러서 萬物이 귀착하는 곳이 되고, 또 食物의 바다가 되므로 足陽明은 밖으로는 海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胃에 이어져 있다. 湖水는 五湖가 있으니 洞庭, 彭澤, 震澤의 종류이다. 脾는 중앙에 위치하여 四旁으로 灌溉하므로 足太陰은 밖으로는 湖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脾에 이어져 있다. 汝水는 河南의 天息山에서 발원하니 河南은 天地의 중앙에 위치한다. 무릇 하늘은 地上에 위치하여 보이는 것이 182도 5분이다. 地下 역시 그러하니 北極은 地上36도

에서 나오고, 南極 역시 地下 36도에서 들어가니, 嵩正堂은 하늘의 中極이다. 대개 天氣는 땅의 바깥을 둘러싸고, 또한 가운데를 따라서 地中을 通貫하므로 天息이라 일컫는다. 腎은 天一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根源이 되니 위로 喉에 상응하여 呼吸을 주관하므로 足少陰은 밖으로는 汝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腎에 이어져 있다. 灑水는 青州의 臨淄에서 발원하여 西쪽 淮水로 들어가니 天下의 水는 모두 東쪽으로 가는데 灑水는 東쪽으로부터 오므로 足厥陰이 東方의 肝木에 상응되는 것이다. 淮水는 海水로부터 발원하여 淮泗로 들어가니, 小腸이 胃의 水液을 受盛하고, 濟水는 膀胱으로 스며 나오니 手太陽은 밖으로는 淮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小腸에 이어져 있다. 溧水, 濟水는 西北쪽에 大水니, 溧水와 濟水가 合해져서 兗豫諸州로 들어간다. 少陽은 君主의 재상이 되니 陰陽이 相合하므로 手少陽은 溧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三焦에 이어져 있다. 江水는 西쪽에 蜀岷山에서 발원하여 萬里를 굽어 꺾어지고 동쪽 海水로 들어가고 大腸은 食物을 傳道하여 濟水가 別汁을 분비하여 廻腸이 16回 꺾이고 膀胱으로 스며들어가므로 手陽明은 밖으로는 江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大腸에 이어져 있다. 黃河는 星宿海에서 발원하여 乾位로부터 와서 千里에 한번 굽어지므로 黃河의 水는 天上에서 온다 하고 肺가 乾金에 속하며 하늘을 주관하니 水의 生源이 되는 고로 手太陰은 밖으로는 河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肺에 이어져 있다. 濟水는 王屋山에서 발원하여 河水를 끊고 흐르나 물이 혼탁하지 않고 맑으므로 淸濟라 말한

- 汝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汝水는 出汝南郡定陵縣高陵山하여 東南流入淮이다
- 江水는 指長江而言이다
- 淮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淮水는 出南陽郡平武縣桐栢山하여 東南流入海라
- 溧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溧水는 出平原郡하여 東北流入于海요 又河內도 亦有溧水니 出王屋山하여 東南流入河라 하고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 溧水는 源出章丘長白山하여 入小清河歸海하니 今屬山東省濟南府라
- 河水는 卽黃河라
- 瀉水는 『太素』十二水注에 瀉水는 淸漳水也니 出上黨沽縣西北少山하여 東流合濁漳入于海요 一解是濁漳이라 濁漳은 出于上黨長子縣西發鳩山하여 東流入海也라
- 濟水는 『太素』十二水注에 濟水는 出河東恒縣하여 至王屋山溧水는 源出章丘長白山하여 東北流入於河라 하고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 江源은 初發王屋山下니 曰沆水요 旣見而伏하고 復出爲濟요 濟는



다. 땅속에서 숨어서 흐르며 자주 끊기어서 형상이 비록 미약하여 홀로이므로 四瀆 가운데 하나이다. 心이 君主의 官이 되고 獨尊이므로 手少陰은 밖으로는 濟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에 이어져 있다. 漳水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沽縣의 嶺마을 大隄谷에서 발원하여 淸漳이라 일컫는다. 하나는 長子縣의 嶺마을 鹿谷山에서 발원하여 濁漳이라 일컫는다. 2個 漳水의 發源地가 다르나 下流에서는 서로 合해지고, 무릇 血은 神氣이고 陰中之 淸이니 心이 주관하는 것이다. 厥陰包絡에 合해져서 經脈中으로 흘러가는 것이 二水가 合流하는 것에 비유되므로 手心主가 밖으로는 漳水에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包에 이어져 있다. 이는 사람이 天地에 相合하고 陰陽에 상응하는 것이다. 愚貢이 생각하길 膀胱은 水腑가 되니 津液을 받아서 간직함을 주관한다. 津液은 三焦를 따라서 氣를 내보내므로써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三焦의 下俞는 委陽穴로 나와 足太陽經脈의 正經과 병

행하고 膀胱으로 入絡하여 下焦를 約하니 中焦가 만들어 낸 津液은 中焦의 氣를 따라서 나온다. 膀胱은 그 津液을 간직하여 下焦의 氣를 따라서 내보내니 피부 표면을 운행하여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므로 「示從容論」에서 말하길 怯然少氣하는 사람은 水道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形과 氣가 소실되고, 水道가 通한다고 말하는 것은 水道가 위로 하늘과 通함을 이르는 것이다. 오직 아래로 溲便이나 가는 것만은 아니고 무릇 泉이 地下에 있는 것처럼 地는 天之中에 있어서 水가 天氣를 쫓아서 地의 밖에서 上下순환을 따르는 것이고 거둬 地中으로 通貫하므로 밖으로 源泉이 있고 안으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바가 있는 것이다. 대개 地는 泉水를 가지고 있어서 밖으로는 12經水의 源流가 되어 이들 모두 內外가 서로 通하여 등근 고리처럼 끊이 없고 사람 역시 이에 상응한다.”<sup>30)</sup>고 하였다.

30) 馬·張·小

夫三陰三陽은 合天之六氣하고 手足經脈은 應地之經水하고 十二經脈은 外合於六氣하고 內屬於臟腑하니 是以 手足之三陰三陽은 外合於十二經水하고 而經水도 又內屬於臟腑라 此는 人之所以參天地而應陰陽也니 淸水及黃河는 合淮處하여 分流爲淸河하고 肺屬天而主氣요 膀胱爲津液之腑니 受氣化而出이요 六腑皆濁이나 而膀胱之水獨淸 故로 足太陽外合於淸水하고 內屬於膀胱而通水道焉이라 渭水는 出於雍州하여 合涇 內 漆 沮 瀉水나 而渭水獨淸이요 諸陽皆濁이나 而膽爲中精之腑니 獨受其淸 故로 足少陽外合於渭水하고 內屬於膽이라 海水는 汪洋於地之外하고 而地居海之中하며 陽明居中土하여 爲萬物之所歸요 又爲水穀之海 故로 足陽明은 外合於海水而內屬於胃라 湖水는 有五湖하니 則洞庭 彭澤 震澤之類요 脾位中央하여 而灌溉於四旁 故로 足太陰은 外合於湖水하고 而內屬於脾라 汝水는 發源於河南天息山하니 河南은 居天地之中이라 夫天居地上見者一百八十二度半強이요 地下亦然하니 北極出地上三十六度하고 南極入地下亦三十六度하니 而嵩正堂天之中極이라 蓋天氣包於地之外하고 又從中而通貫於地中 故로 名天息이라 腎主天一之水이고 而爲生氣之原이니 上應於喉하여 以司呼吸 故로 足少陰은 外合於汝水하고 而內屬於腎이라 澠水는 出於青州之臨淄하여 而西入於淮하니 天下之水는 皆從東去이나 澠水自東而來 故로 應足厥陰東方之肝木이라 淮水自海水而入於淮泗이니 小腸受盛胃之水液이고 而濟泌於膀胱 故로 手太陽은 外合於淮水하고 內屬於小腸이라 漯濟는 及西北之大水니 漯合濟而入於兗豫諸州요 少陽은 爲君主之相이니 陰陽相合 故로 手少陽은 合於漯水하고 而內屬於三焦라 江水는 自西蜀岷山으로 發源하여 曲折萬里하여 而東入於海이고 大腸은 傳道水穀하여 濟泌別計하여 廻腸十六折이고 而滲入膀胱 故로 手陽明은 外合於江水하고 內屬於大腸이라 黃河는 源發於星宿海하여 自乾位而來하여 千里一曲 故로 曰黃河之水天上來요 肺屬乾金而主天하여 爲水之生源 故로 手太陰은 外合於河水하고 而內屬於肺라 濟水는 發源於王屋山하여 截河而流나 水不混其淸 故로 名曰淸濟요 潛流屢絕하여 狀雖微而獨尊 故로 居四瀆之一이요 心은 爲君主之官而獨尊 故로 手少陰은 外合濟水하고 內屬於心이라 漳水에 有二하니 一出上黨沽縣大隄谷하여 名爲淸漳이요 一出上黨長子縣鹿谷山하여 名爲濁漳이라 二漳異源이나 而下流相合하고 夫血者는 神氣요 陰中之淸이니 心所主也라 合厥陰包絡而流行於經脈之中이 猶二水之合流 故로 手心主는 外合於漳水하고 內屬於心包라 此는 人之所以參天地而應陰陽也라 愚는 按전대 膀胱은 爲水腑니 主受藏津液이요 津液은 及隨三焦出氣하여 以溫肌肉하고 三焦下俞出於委陽하여 并太陽之正하고 入絡膀胱하여 約下焦하니 是中焦所生之津液은 卽隨中焦之溫氣而出이요 膀胱所藏之津液은 卽隨下焦之氣而出이니 運行於膚表以溫肌肉하고 充皮膚 故로 示從容論에서 曰怯然少氣者는 是水道不行하여 形氣消索也요 曰通水道者는 謂水道之上通於天이요 非獨下出之溲便也요 若夫泉在地之下하고 地居天之中하여 水隨天氣하여 上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於’에 대하여 態本·周本·藏本·『甲乙·卷1·十二經水第7』·馬·張·今釋·校釋은 ‘于’로 보았고, 『太素·卷5·十二水』·景岳·黃·維傑은 ‘於’로 보았으나, 본문에 ‘足太陽外合清水~內屬於心包.’의 내용속에서 ‘於’·‘于’가 동일한 의미와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于’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思料된다.

‘內屬於小腸, 而水道出焉’에 대하여『太素·卷5·十二水』는 ‘內屬於膀胱~內屬於小腸, 而通水道焉’으로 보았고, 『甲乙·卷1·十二經水第7』·馬·張·景岳·黃·維傑·今釋·校釋은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內屬於小腸’으로 보았다. 본문에서 ‘內屬於小腸, 而水道出焉’은 ‘水道가 나온다’는 뜻이고,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은 ‘水道를 通하게 한다’는 뜻이며, 楊·小·皇의 註釋에서 ‘膀胱爲水府, 主藏津液, 受氣化而出, 故能通調水道.’와 馬·張·小의 ‘膀胱爲水腑~曰通水道者, 謂水道之上通於天, 非獨下出之溲便也.’라는 註釋에서와 같이 ‘而通水道焉’이 小腸의 기능보다는 膀胱의 기능을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또, 皇은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內屬於三焦, 而水道出焉’이라 하며 內經의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에 근거하여 교정한다고 이유를 달았으니 참고할만하다 하겠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의 말을 들건대 듣기에는 명쾌하나 內心으로는 이해가 안되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天地와 상응하고

陰陽과 상응하는 까닭이므로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足太陽經은 밖으로는 清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膀胱에 이어져 있어서 水道를 通하게 합니다. 足少陽經은 밖으로는 渭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膽에 이어집니다. 足陽明經은 밖으로는 海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胃에 이어집니다. 足太陰經은 밖으로는 湖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脾에 이어집니다. 足少陰經은 밖으로는 汝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腎에 이어집니다. 足厥陰經은 밖으로는 澗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肝에 이어집니다. 手太陽經은 밖으로는 淮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小腸에 이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水道가 나옵니다. 手少陽經은 밖으로는 溲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三焦에 이어집니다. 手陽明經은 밖으로는 江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大腸에 이어집니다. 手太陰經은 밖으로는 河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肺에 이어집니다. 手少陰經은 밖으로는 濟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에 이어집니다. 手心主(手厥陰)은 밖으로는 澮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包絡에 이어집니다.

第2節. 陰陽과 人的 相應

【原文】

凡此五臟六腑十二經水者는 外有源泉<sup>1)</sup>하고 而內有所稟<sup>1)</sup>하니

此皆內外相貫이 如環無端이니 人經<sup>2)</sup>도 亦然이라 故로 天爲陽이요 地爲陰이니 腰以上<sup>2)</sup>은 爲天이요 腰以下는 爲地라

故로 海以北者<sup>3)</sup>爲陰이요 湖以北者는 爲陰中之陰이요 澮以南者는 爲陽이요 河以北至澮者는 爲陽中之陰이요 溲以南至江者는 爲陽中之太陽<sup>4)</sup>이라

此는 一隅<sup>5)(3)</sup>之陰陽也니 所以人이 與天地로 相參也<sup>6)</sup>라

【校勘】

1) 外有源泉:『甲乙·卷1·十二經水第7』,『太

下環轉於地之外하고 而復通貫於地中 故로 曰外有源泉이요 而內有所稟이라 蓋地稟在泉之水而以外爲十二經水之源流하여 內外相貫이 如環無端而人도 亦應之라

素·卷5·十二水』에는 “皆外有源泉”로 되어 있다.

2) 腰以上:『太素·卷5·十二水』에는 “腰已上”으로 되어 있다.

3) 海以北者:『太素·卷5·十二水』에는 “清以北者”으로 되어 있다.

4) 太陽:『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5) 一隅:『甲乙·卷1·十二經水第7』,『太素·卷5·十二水』에는 “一州”로 되어 있다.

6) 所以人與天地參也:『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此人所以與天地參也”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稟: 稟賦, 받을 품
- (2) 經: 經脈, 경맥 경
- (3) 隅: 區域, 구석 우. 一隅은 일부 지역

【較註】

(1) 凡此五臟六腑十二經水者, 外有源泉, 而內有所稟, 此皆內外相貫, 如環無端, 人經亦然.

楊은 “12經水是 江水가 岷山에서 나오고, 河水가 崑崙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밖으로 根源이 있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즉, 안으로는 타고난 바가 있는 것이다. 수가 바다에 도달하여 상승하면 天河가 되어 다시 根源을 따라서 나오고 바다로 흘러서 들어가니 곧, 모두가 內外가 서로 通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經脈도 역시 그렇다. 足三陰脈은 足指를 따라서 起始하니, 밖으로 根源이 있는

것이고 上行하여 府에 絡하고 藏에 속하는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되니 안으로 타고난 바가 있는 것이다. 手三陰脈은 胸을 따라서 手에 이르지만 手三陽脈으로 변한 것은 手를 따라서 起始하니 곧 밖으로 根源이 있는 것이고, 上行하여 藏에 絡하고 府에 속하는 것은 안으로 타고난 바가 있는 것이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頭에 도달하는 것은 足三陽脈이 되고, 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足에 도달하여 다시 足三陰脈으로 變하니, 곧 內外가 서로 通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sup>31)</sup>고 하였고,

景岳·小는 “무릇 經水는 河水와 海水가 밖에서 운행하는 것이니 源泉이 땅에서 나오고, 經脈은 脈絡이 表에서 운행하고, 藏府는 가운데에서 주관하므로 內外가 서로 通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sup>32)</sup>고 하였다.

(2) 故天爲陽, 地爲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楊은 “사람의 허리 이상은 하늘이 되고 陽이 되는 것이며, 허리 이하는 땅이 되고 陰이 되는 것이니, 經脈이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와서 經水와 함께 同行하므로 相合을 얻는 것이다.”<sup>33)</sup>고 하였고,

景岳·小는 “經水와 經脈은 각기 陰陽의 나뉘임이 있으니, 가령 하늘은 가볍고 淸하며 上에 있으므로 하늘은 陽이 되고, 땅은 무겁고 濁하며 下에 있으므로 陰이 된다. 「六旨大論」에서 말하길 天樞의 上은 天氣가 주관하고, 天樞의 下는 地氣가 주관하니, 사람의 몸도 天地에 상응하므로 허리 이상은 하늘이 되고 陽에 속하고, 허리 이하는 땅이 되고 陰에 속하니, 經脈

31) 楊~ 十二經水는 如江出岷山하고 河出崑崙하니 卽外有源也요 流入於海하니 卽內有所稟也라 水至於海已上은 爲天河하여 復從源出하고 流入於海하니 卽爲內外相貫이 如環無端也요 人經도 亦然이라 足三陰脈은 從足指起하니 卽外有源也요 上行絡府屬藏은 比之入海니 卽內有所稟也라 以爲手三陰脈은 從胸至手니 變爲手三陽脈은 從手而起니 卽外有源也요 上行絡藏屬府하니 卽內有所稟也요 上頭以爲足三陽脈이요 從頭之下足하여 復變爲足三陰脈이니 卽內外相貫이 如環無端也라

32) 景岳·小~ 夫經水者 河海行於外하니 而源泉出於地하고 經脈者는 脈絡行於表하고 而藏府는 主於中 故요 內外相貫이 如環無端也라

33) 楊~ 人腰以上은 爲天爲陽也요 自腰以下는 爲地爲陰也니 經脈이 昇天降地하여 與經水로 同行 故로 得合也라

과 藏府가 經水에 상응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sup>34)</sup>고 하였다.

(3) 故海以北者爲陰, 湖以北者爲陰中之陰, 漳以南者爲陽, 河以北之漳者爲陽中之陰, 滌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 此一隅之陰陽也, 所以人與天地相參也.

楊은 “清水의 以北은 陰이고, 湖水는 清水의 北쪽에 있으므로 陰中之 陰이 되고, 漳水의 南쪽은 陽이 되고, 河水의 北쪽은 陰이 되므로 河水의 北쪽에서 漳水까지가 陽中之 陰이 된다. 滌水는 陽地에 머무르므로 陽中之 太陽이 된다. 陰陽의 이치는 形이 없으므로 큰 것은 너무 커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나, 사람만은 一州의 땅에서 살아가니 반드시 象이 되어 一州의 陰陽이 相參하여 들어맞아지는 것이다.”<sup>35)</sup>고 하였고,

景岳·小·語譯·校釋은 “海以北者爲陰’의 뜻은 海水는 胃에 配合되고, 湖水는 脾에 配合되니, 脾胃는 中州에 머무르며 腰를 나눈다. 海以北者爲陰은 곧 胃腑를 말한 것이고, 胃로부터 아래는 小腸, 膽과 膀胱 모두 腑에 속하고 胃의 北쪽에 머무르면서 陰이 된다. ‘湖以北者爲陰中之陰’의 뜻은 곧 脾臟을 말한 것이니, 脾로부터 아래는 肝, 腎이 모두 臟에 속하고 脾의 北쪽에 머무르며 陰中之 陰이 되는 것이다. ‘漳

以南者爲陽’의 뜻은 허리 이상은 漳水가 心主에 配合되니 心主의 위쪽은 오직 心과 肺이므로 漳水의 以南은 陽이 된다. ‘河以北之漳者爲陽中之陰’의 뜻은 河水는 肺에 配合되고 肺의 아래도 오직 心과 心主이므로 河水의 以北에서 漳水까지는 陽中之 陰이 된다. ‘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의 뜻은 무릇 이 모든 것에서 上은 南이고, 下는 北이라 함은 陰陽을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陽이 있다는 것은 臟腑의 바깥이 三焦가 되고, 三焦의 바깥이 皮毛가 되니 三焦는 滌水에 配合되며, 大腸은 江水에 配合되므로 滌水의 以南에서 江水까지는 陽中之 太陽이 된다.”<sup>36)</sup>고 하였고,

馬·張은 “馬蒔가 「水熱穴論」에서 말하길 腎은 至陰이고, 至陰은 水를 盛하게 한다. 肺는 太陰이고, 少陰은 冬脈이므로, 그것에 근본은 腎에 있고, 그 末은 肺에 있어서 모두가 水를 모으는 것이다. 腎臟의 精水와 膀胱의 津水는 모두 肺가 氣를 주관하는 것을 좇아서 膚表를 운행하므로 허리 이상은 하늘이 되고, 허리 이하의 땅이 되니 天地의 上下에 모두 水가 있는 것이다. 海水의 以北은 胃가 중앙에 머무르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中胃의 아래는 陰이 되고 肝, 腎이 머무르는 곳이다. 湖水의 以北은 脾土가 머무르는 곳이므로 陰中之 陰이 되고, 脾는 陰中之 至陰이 된다. 漳水의 以南은 陽이 되고, 心이 包絡의 위쪽을 주관하니, 心과 肺가 머무르는 곳이다. 대개 上은 天이 되고, 陽이 되고, 南이 되며, 下는 地가 되고, 陰이 되고, 北이 된

34) 景岳·小~ 經水經脈은 各有陰陽之分하니 如天은 以輕清在上 故로 天爲陽이요 地以重濁在下 故로 地爲陰이라 六微旨大論에 曰天樞之上은 天氣主之이고 天樞之下는 地氣主之하니 人身도 應天地 故로 腰以上은 爲天屬陽이요 腰以下는 爲地屬陰이니 而經脈藏府之應於經水者도 亦然이라

35) 楊~ 清水以北은 已是其陰이요 湖在清北 故로 爲陰中之陰也요 漳南爲陽이요 河北爲陰 故로 河北至漳이 爲陽中陰也요 滌居陽地 故로 陽中太陽이라 陰陽之理無形하여 大之無外하고 小之無內나 但人生一州之地形 必象之故로 以一州陰陽合入者也라

36) 景岳·小·語譯·校釋

○海以北者爲陰-海合于胃하고 湖合于脾하니 脾胃居于中州하여 腰之分也요 海以北者爲陰은 就胃腑言이요 自胃而下는 則小腸 膽與膀胱이 皆屬腑요 居胃之北而爲陰也라

○湖以北者爲陰中之陰-就脾臟言이니 自脾而下는 則肝腎이 皆屬臟이요 居脾之北而爲陰中之陰이라

○漳以南者爲陽-腰以上者는 如漳合于心主니 心主之上은 惟心與肺 故로 漳以南者爲陽也라

○河以北之漳者爲陽中之陰-河合于肺하고 肺之下로 亦惟心與心主 故로 河以北至漳者는 爲陽中之陰也라

○滌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凡此皆以上南下北은 言陰陽耳요 然이나 更有其陽者는 則臟腑之外爲三焦요 三焦之外爲皮毛니 今三焦合于滌水하며 大腸合于江水 故로 曰滌以南至江者는 爲陽中之太陽也라

다. 河水의 以北에서 滄水까지는 上焦를 따라서 背로 後行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溧水의 以南에서 江水까지는 中焦를 따라서 腹으로 前行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面은 南이고, 背은 北이니 대개의 사람은 天地의 사이, 六合의 안에서 살아가므로 사람의 몸을 일부 지역에 陰陽으로 例를 든 것으로써, 天地의 上下四旁에 사람과 天地가 함께 相應하기 때문인 것이다.”<sup>37)</sup>고 하였고,

維傑·皇은 “‘海以北者爲陰’의 뜻은 이는 河流가 있는 곳의 구역으로 위치를 陰陽의 구별로 나타내서 비교할 종류를 모아서 經脈의 분포와 前, 後, 上, 下에 비유하고 또한, 모두가 일정한 위치와 陰陽의 속성이 있다. 海水가 胃經에 配合하는 것은 고대의 伏羲씨 八卦의 방위에 근거하여 左는 東, 右는 西, 上은 南, 下은 北이므로, 海水의 以北은 胃經 以下の 膽과 膀胱 2經을 가르키는 것이다. 또 허리 이하가 陰이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足三陽經은 모두가 頭部로부터 足에 이르기까지 下行하니 下肢부분에서의 분포는 陽明胃經은 前緣에 있고, 少陽膽經은 가운데 있고, 太陽膀胱經은 後緣에 있으므로, 仰臥할 때에는 膽과 膀胱 二經의 부위는 모두 胃經의 아래에 있으며, 下는 陰이 되니 따라서 海水의 以北이 陰이 된다. ‘湖以北者爲陰中之陰’에 뜻에서 湖水는 脾經에 配合한다. 湖水의 以北은 곧 脾經 以下の 肝과 腎 二經을 가리킨 것이다. 陰中之 陰은 下肢의 內側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足三陰經은 모두 下肢의 안쪽

에 분포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太陰脾經은 前緣, 厥陰肝經은 가운데, 少陰腎經은 後緣에 있으므로 仰臥할 때에 肝과 腎 二經의 위치는 모두 脾經의 아래쪽에 있으니 따라서 湖水의 以北이 陰中之 陰이 된다. ‘滄以南者爲陽’에 뜻에서 滄水는 心包絡經에 配合한다. 滄水 以南은 心包絡經의 위쪽에 肺經을 가리킨 것이다. 또 허리 이상은 陽이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면 이것은 上肢를 가르킨 것이다. 心包絡經과 肺經이 上肢에 분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肺經은 앞쪽에 있으므로 仰臥할 때에 心包絡經의 위쪽이 肺經이 되며, 따라서 滄水의 以南이 陽이 된다. ‘河以北至滄者爲陽中之陰’에 뜻에서 河水는 肺經에 配合한다. 河水 以北에서 滄水까지는 곧 肺經 以下가 滄水와 서로 配合하는 心包絡經과 함께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陽中之 陰은 上肢의 內側을 가리키니 肺와 心包絡經이 上肢의 內側에 분포되었음을 뜻하여 仰臥할 때에 肺經의 아래쪽이 心包絡經이 되니 따라서 河水 以北에서 滄水까지가 陽中之 陰이 된다. ‘溧以南至江者, 爲陽中之太陽’에 뜻에서 溧水는 三焦經에 配合한다. 陽中之 太陽이며, 上肢의 外側을 가리키니 三焦와 大腸經이 上肢의 外側에 분포되어 있음을 뜻하고, 大腸經은 前緣에 있고, 三焦經은 가운데에 있으므로 仰臥할 때에는 三焦經의 위쪽에 大腸經이 위치하게 되니 따라서 溧水 以南에서 江水까지가 陽中之 太陽이 된다.”<sup>38)</sup>고 하였다.

37) 馬·張-

「水熱穴論」에서 曰腎者는 至陰也요 至陰者는 盛水也요 肺者는 太陰也요 少陰者는 冬脈也 故요 其本在腎하고 其末在肺하여 皆積水也요 是腎臟之精水와 膀胱之津水는 皆隨肺主之氣하여 而運行於膚表 故요 腰以上爲天이요 腰以下爲地니 天地上下之皆有水也라 海以北者는 謂胃居中央하니 以中胃之下爲陰요 肝腎之所居也라 湖以北者는 及脾土所居之分 故요 爲陰中之陰이요 脾爲陰中之至陰也라 滄以南者爲陽이요 及心主包絡之上이니 心肺之所居也라 蓋以上爲天爲陽爲南하고 下爲地爲陰爲北也요 河以北至滄者는 謂從上焦而後行於背也요 溧以南至江者는 謂從中焦而前行於腹也라 此는 以人之面南而背北也니 蓋人生於天地之間 六合之內하여 以此身一隅之陰陽하여 應天地之上下四旁하여 所與天地參也라

38) 維傑·皇

○海以北者爲陰 - 這是以河流所在的區域으로 在位置上作出陰陽的區別하여 取類比象하여 用來比喻經脈的分布前後上下하고 也都有一定的位置和陰陽的屬性이라 海水配合了胃經은 根據古代伏羲八卦的方位하여 左東右西하고 上南下北하여 海以北은 就是指胃經以下的膽和膀胱二經이라 又根據腰以下爲陰的原則하여 也就是指這三條足陽經은 都是從頭部下行至足이니 分布在下肢方面은 其中陽明胃經在前緣하고 少陽膽經在中하고 太陽膀胱經在後緣하여 如在仰臥時에 則膽和膀胱二經的部位는 都在胃經的下方하고 下

【考察】

〔較勘에 대한 考察〕

‘一隅’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太素·卷5·十二水』에서는 ‘一州’로 보았고, 馬·景岳·張·維傑·小·皇·今釋은 ‘一隅’로 보았다. ‘一州’를 楊은 ‘陰陽之理無形. 大之無外. 小之無內. 但人生一州之地形必象之故以一州陰陽合入者也.’라 했고, ‘一隅’를 馬·張은 ‘蓋人生於天地之間, 六合之內, 以此身一隅之陰陽, 應天地之上下四旁, 所與天地參也.’라 하였으니, 본문에서 ‘一隅’·‘一州’는 모두 내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兩者가 모두 옳다고 思料되어 지나 註釋家들이 ‘一隅’만을 言及하니 ‘一州’의 言及도 고려할 만 하다고 思料된다.

‘外有源泉’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太素·卷5·十二水』에서는 ‘皆外有源泉’으로 보았고, 馬·景岳·張·黃·維傑·小·皇·語譯·今釋은 ‘外有源泉’으로 보았다. 본문에서 ‘外有源泉’·‘皆外有源泉’이 모두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지만 下文의 ‘此皆內外相貫’과 문장적 댓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註釋家들이 ‘外有源泉’을 따르고는 있으나,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皆外有源泉’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太陽’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서는 ‘陽’으로 보았고, 『太素·卷5·十二水』·馬·景岳·張·黃·維傑·小·皇·語譯·今釋은 ‘太陽’으로 보았다. 본문에서 ‘太陽’·

‘陽’ 모두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으나 上句에 ‘爲陰中之陰’·‘爲陽中之陰’등과의 문장적 댓구를 고려하면 ‘爲陽中之陽’의 ‘陽’이 옳다고 思料되고, 楊의 ‘深居陽地. 故陽中太陽’에서처럼 陽의 명확한 의미를 의도한다면 ‘太陽’이 더 옳으므로 註釋家들이 어느곳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太陽’으로도 ‘陽’으로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註釋家들이 ‘太陽’만을 言及하니 ‘陽’의 言及도 고려할 만 하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故海以北者爲陰, 湖以北者爲陰中之陰, 漳以南者爲陽, 河以北之漳者爲陽中之陰, 深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 此一隅之陰陽也, 所以人與天地相參也’에 대한 註釋에서 河流가 있는 곳의 구역과 위치를 陰陽의 구별로 나타냄에 있어서 左=東, 右=西, 上=南, 下=北, 上=陽, 下=陰에 근거하여서, 楊은 12水를 陰·陽으로 나타내고, 景岳·小·語譯·校釋은 12水에 配屬된 五臟六腑의 위치를 上, 下에 비유하여 陰·陽으로 나타내고, 馬·張은 天地의 水와 人體內의 水를 통해서 上·下·陰·陽을 설명한 다음에 12水에 配屬된 五臟六腑를 陰·陽으로 나타내며, 維傑·皇은 비교할 종류를 모아서 經脈의 분포를 前, 後, 上, 下에 비유하여 12水에 配屬된 五臟六腑를 陰·陽으로 나타내고, 12經脈의 분포와 12經脈에 配屬된 五臟六腑까지를 陰·陽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여러 註釋들을 요약하면 臟腑經脈이 地의 12經水에 상응함을 論한 것이고, 나아가 人이 天地의 道

爲陰이니 所以說海以北爲陰이라

- 湖以北者爲陰中之陰 - 湖水配合脾經이라 湖以北者는 就是指脾經以下的肝腎二經이요 陰中之陰은 指下肢의 內側이니 意思是足三陰經都가 分布於下肢의 內側하고 太陰脾經在前緣하고 厥陰肝經居中하고 少陰腎經在後緣하여 如在仰臥時에 肝腎二經의 位置는 都在脾經의 下方하니 所以說湖以北者爲陰中之陰이라
- 漳以南者爲陽 - 漳水配合心包絡經이라 漳以南者는 就是指心包絡經以上的肺經이요 又根據腰以上爲陽의 原則이면 這裏는 指의 上肢요 意思是心包絡經和肺經都分布在上肢而肺經在前하여 如在仰臥時에 心包絡經의 上方是肺經이여 所以說漳以南者爲陽이라
- 河以北至漳者爲陽中之陰 - 河水配合肺經이라 河以北至漳은 就是指肺經以下到與漳水相配合의 心包絡經이요 陽中之陰은 指上肢의 內側이니 意思是肺和心包絡經都分布在上肢의 內側하여 如在仰臥時에 肺經의 下方이 就是心包絡經하니 所以說河以北至漳者가 爲陽中之陰이라
- 深以南至江者, 爲陽中之太陽 - 深水配合三焦經이라 陽中之太陽이여 指上肢의 外側이니 意思是三焦和大腸經都分布在上肢의 外側하고 大腸經在前緣하고 三焦經居中하여 如在仰臥時에 三焦經의 上方에 就是大腸經의 位置하니 所以說深以南至江者가 爲陽中之太陽이라

와 尙합함을 論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일정한 위치와 陰陽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直譯】

무릇 이들 五臟六腑와 十二經水는 밖으로는 源泉이 있고 안으로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바가 있으니, 이들 모두는 內外가 서로 通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으니, 人體의 經脈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며, 人體의 허리 이상은 하늘이 되고, 허리 이하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海水 以北을 陰이라 하고, 湖水 以北을 陰中의 陰이라 하며, 漳水 以南을 陽이라 하고, 河水 以北에서 漳水까지를 陽中의 陰이라 하며, 溧水 以南에서 江水까지를 陽中의 太陽이라 합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陰陽을 例로 든 것으로써 인간이 天地와 함께 상응하는 까닭입니다.

第4章. 鍼灸法에 天人相應의 적용

【原文】

黃帝曰<sup>1)</sup> 夫經水之應經脈也 其遠近淺深과 水血之多少는 各不同하니 合而以刺之는 奈何<sup>2)</sup>요

岐伯이 答曰<sup>3)</sup> 足陽明은 五臟六腑之海也니 其脈大<sup>4)</sup> 하고 血多氣盛하여 熱壯<sup>11)</sup> 하니 刺此者는 不深勿散<sup>5)(2)</sup> 하고 不留<sup>3)</sup> 不瀉<sup>4)</sup>也라

足陽明은 刺深六分<sup>6)</sup> 하고 留十呼<sup>3)</sup>요 足太陽은 深五分<sup>7)</sup> 하고 留七呼<sup>3)</sup>요

足少陽은 深四分<sup>8)</sup> 하고 留五呼<sup>3)</sup>요 足太陰은 深三分<sup>9)</sup> 하고 留四呼<sup>3)</sup>요

足少陰은 深二分<sup>10)</sup> 하고 留三呼<sup>3)</sup>요 足厥陰은 深一分<sup>11)</sup> 하고 留二呼<sup>12)</sup>요

手之陰陽은 其受氣之道<sup>5)</sup> 近하여 其氣之來疾<sup>6)</sup> 하니 其刺深<sup>7)</sup>者<sup>13)</sup>는 皆無過<sup>14)</sup>二分하고 其留皆無過<sup>14)</sup>一呼<sup>3)</sup>요

其少長大小<sup>15)</sup>肥瘦는 以心擦<sup>8)</sup>之<sup>16)</sup>니 命曰法<sup>9)</sup>天<sup>10)</sup>之常이요

灸之亦然이라 灸而過此者가 得惡火<sup>11)</sup>則骨枯<sup>12)</sup>脈澁<sup>17)(13)</sup>이요 刺而過此者는 則脫氣<sup>14)</sup>라

【校勘】

1) 黃帝曰:『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曰”로 되어 있다.

2) 合而以刺之奈何:『甲乙·卷1·十二經水第7』에 “合而刺之奈何”로 되어 있다.

3) 岐伯答曰:『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曰”로 되어 있다.

4) 脈大:『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脈大而”로 되어 있다.

5) 勿散:『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弗散”으로 되어 있다.

6) 刺深六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多血多氣 刺深六分”으로 되어 있고, 『太素·卷5·十二水』에는 “深六分”으로 되어 있다.

7) 深五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多血多氣 刺深五分”으로 되어 있다.

8) 深四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 “少血多氣 刺深四分”으로 되어 있다.

9) 深三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多血少氣 刺深三分”으로 되어 있다.

10) 深二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 “少血多氣 刺深二分”으로 되어 있다.

11) 深一分:『甲乙·卷1·十二經水第7』에 “多血少氣 刺深一分”으로 되어 있다.

12) 二呼:『甲乙·卷1·十二經水第7』과 明抄本에는 “一呼”로 되어 있다.

13) 刺深者皆無過:『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刺深皆無過”로 되어 있고, 『太素·卷5·十二水』에는 “深皆毋過”로 되어 있다.

14) 無過:『太素·卷5·十二水』에는 “毋過”로 되어 있다.

15) 大小:『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小大”로 되어 있다.

16) 擦之:『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料之”로 되어 있다.

17) 脈澁:『太素·卷5·十二水』에는 “脈漬”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壯: 盛也, 성할 장

- (2) 散: 布散, 흩뜨릴 산
- (3) 留: 停留, 머무를 류
- (4) 瀉: 瀉也, 쏟을 사
- (5) 道: 通路, 길 도
- (6) 疾: 急速, 빨리 질
- (7) 深: 深也, 깊이 심
- (8) 擦: 審也, 헤아릴 찰
- (9) 法: 效法, 본받을 법
- (10) 天: 自然界, 하늘 천
- (11) 惡火: 火無善惡, 火壯傷多
- (12) 枯: 痠瘦, 마를 고
- (13) 澀: 澀也, 걸끄러울 삼
- (14) 脫氣: 損傷正氣, 脫은 消肉隤也

【較註】

〔1〕 夫經水之應經脈也, 其遠近淺深, 水血之多少, 各不同, 合而以刺之奈何?

景岳은 “鍼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든 經에서 다르므로 刺入에 깊이가 있으니 分寸을 살펴야 하며, 留鍼에 속도가 있으니 呼吸에 법도가 있어야 한다. 각 經脈의 깊이와 길이에 따라서 알맞게 施術한다.”<sup>39)</sup>고 하였고,

小는 “楊上善이 말하길 三意를 물으니, 經水와 經脈의 길이가 그 하나고, 깊이가 둘이고, 水와 血의 많고 적음이 셋이므로 人體의 經脈은 3가지 다름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sup>40)</sup>고 하였다.

〔2〕 岐伯答曰: 足陽明, 五臟六腑之海也.

其脈大, 血多氣盛, 熱壯, 刺此者不深勿散, 不留 不瀉也.

景岳·小는 “12經脈 中에서 足陽明經脈이 가장 크고 氣가 많고, 血이 많아서 邪氣가 盛하면 熱이 반드시 壯盛한 것이니, 무릇 이곳에 鍼을 놓을 때는 깊게 찌르지 않으면 邪氣를 흩뜨릴 수 없고 鍼을 꽂아 두지 않으면, 邪氣를 내몰 수 없다.”<sup>41)</sup>고 하였고,

楊·語譯은 “ ‘足陽明, 五臟六腑之海也’의 뜻은 楊上善이 말하길 胃는 食物을 소화시켜서 血과 氣를 만드는 것이니, 胃足陽明脈은 五臟六腑를 潤澤하게 도와주고, 五臟六腑는 血과 氣를 받아서 만드니 이를 四海라 비유하며, 축축이 적셔 주는 것이 끝이 없으므로 海라고 일컫는다. ‘不深勿散, 不留不瀉也’의 뜻은 張介賓이 말하길 무릇 이곳에 鍼을 놓을 때는 깊게 찌르지 않으면 邪氣를 흩뜨릴 수 없고, 鍼을 꽂아 두지 않으면 邪氣를 내몰 수 없다.”<sup>42)</sup>고 하였고,

王은 “ ‘足陽明, 五臟六腑之海也’의 뜻은 胃經이 五臟六腑의 영양의 원천이 된다. ‘氣盛, 熱壯’의 뜻은 氣盛은 壯熱의 종류이고, 熱壯은 高熱이 낮지 않는 것이니 陽明經의 熱型이다. ‘不深弗散, 不留不瀉’의 뜻은 깊게 찌르지 않으면 熱을 흩뜨릴 수 없고, 鍼을 꽂아 두지 않으면 邪氣를 내몰 수 없다.”<sup>43)</sup>고 하였고,

楊은 “ ‘不深勿散, 不留不瀉’의 뜻은 이 방법으로 鍼을 놓는 것은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의 足三陽脈에 놓는 것이다. 足陽明脈은 깊이가 6分이니 6分의 깊이로 鍼을 놓아야 하

39) 景岳~ 用鍼之法이 諸經不同 故로 入有淺深하니 分寸可察이요 留有遲速하니 呼吸可紀하여 各隨經脈之淺深遠近而施其宜也라

40) 小~ 楊上善이 曰問有三意니 經水經脈遠近一也요 淺深二也요 水之與血多少三也니 然則身經脈有三不同 請隨調之라

41) 景岳·小~ 十二經中에서 惟足陽明之脈이 最大而多氣多血하여 其邪盛者熱必壯하니 凡刺此者는 不深入則邪弗能散이요 不久留則邪不能瀉라

42) 楊·語譯  
○ 足陽明, 五臟六腑之海也 - 楊上善이 曰胃受水穀하여 化成血氣하니 胃足陽明脈은 資潤五臟六腑하고 五臟六腑稟成血氣니 譬之四海滋澤無窮 故로 名爲海也라  
○ 不深勿散, 不留不瀉也 - 張介賓이 曰凡刺此者는 不深入則邪不能散이며 不久留則邪不能瀉라

43) 王  
○ 足陽明, 五臟六腑之海也 - 指胃經爲五臟六腑의 營養源泉이라  
○ 氣盛, 熱壯 - 氣盛은 又種壯熱이요 熱壯은 則高熱不已니 爲陽明經熱型이라  
○ 不深弗散, 不留不瀉 - 不深刺則熱不散이요 不留鍼則邪氣不瀉라



고, 그 脈이 皮下에 깊이 있어서, 血과 氣 또한 盛하므로 6分の 깊이로 鍼을 놓아야만 邪氣를 흘트릴 수 있고, 血과 氣가 이미 盛하면 鍼을 꽂아 두어야만 邪氣를 내 몰 수 있으며, 만약 熱이 피부의 안에 있어서 모여서 病이 된 것은 곧, 이것을 빨리 내몰아야 하므로 '熱卽疾瀉'라고 말한다."<sup>44)</sup>고 하였다.

- (3) 足陽明刺深六分, 留十呼. 足太陽深五分, 留七呼. 足少陽深四分, 留五呼. 足太陰深三分, 留四呼. 足少陰腎二分, 留三呼. 足厥陰深一分, 留二呼.

楊은 "사람에 따라서, 病에 따라서 그 例가 아주 많으니 一概가 될 수 없다. 足太陽脈이 皮肉안에 있으면 깊이는 4分이면 넉넉하므로 鍼의 깊이를 5分으로 하는 것이 一例가 된다. 脈의 운행에도 깊이가 있으니 더듬어 어루만져 알맞게 하는 것이며 나머지도 이와 같다. 鍼을 7呼동안 꽂아 두는 것은 太陽脈氣의 強弱을 근거로 한 一例가 되고, 病의 盛衰와 病의 多少는 수시로 이를 調定해야지 定할 수가 없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sup>45)</sup>고 하였고,

景岳·小·語譯·較註는 "留十呼에 대해 張介賓이 말하길 이는 足三陰三陽經에 鍼을 놓는 방법이다. 出氣를 呼, 入氣를 吸이라 말하니 10呼, 7呼의 종류는 吸이 그중에 있으니 대개 1

呼가 一息이다. 단 鍼을 놓는 것에는 補瀉의 다름이 있고, 呼吸에는 先後의 나뉘미 있으므로 瀉法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病者가 숨을 들며 마실 때에 鍼을 놓고, 재차 숨을 들며 마실 때에 鍼을 돌리며, 숨을 내 뿜을 때에 鍼을 빼낸다. 무릇 補法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病者가 숨을 내 뿜을 때에 鍼을 놓고, 재차 숨을 내 뿜을 때에 鍼을 돌리고, 숨을 들며 마실 때에 鍼을 빼내므로 『鍼賦』에서 말하길 補法은 먼저 숨을 내 뿜고 나중에 숨을 들며 마시며, 瀉法은 먼저 숨을 들며 마시고, 나중에 숨을 내 뿜는 다 하니 바로 이 뜻이다. 후세에 환자에게 기침을 하게 하고, 吸하여 氣를 모아서 멈추게 하는 것은 呼와 吸을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sup>46)</sup>고 하였고,

王은 "留十呼의 留는 鍼을 꽂아 두는 것이고, 呼는 一息을 가리키는 것이니 呼와 吸의 시간이고, 鍼을 꽂아 두는 시간에 10회의 呼吸을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呼吸補瀉의 鍼法은 吸할 때 鍼을 놓고, 呼할 때 鍼을 빼내는 것이 瀉法이 되니, 이는 陽明을 瀉하거나 熱을 빼내는 것을 가리키고, 病人이 10회의 숨을 내 뿜을 때를 기다려서, 鍼을 빼내는 것이므로 留十呼라 일컫는다."<sup>47)</sup>고 하였다.

- (4) 手之陰陽,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疾, 其刺深者皆無過二分, 其留皆無

44) 楊

○不深勿散, 不留不瀉 - 刺此道는 刺中度人足三陽脈이요 足陽明脈은 須深六分이니 爲深也요 其脈이 在皮下深하여 血氣又盛 故로 深六分이라야 方得散其氣也라 血氣既盛하면 留之다야 方得純而瀉也요 若熱在皮膚之中聚爲病者는 卽疾瀉之 故로 曰 熱卽疾瀉也라

45) 楊~ 若隨人隨病하여 其例甚多하니 不可一概也라 今足太陽脈이 在皮肉中하여 有深四分有餘故로

以刺入五分으로 爲例요 若脈行更有深淺하니 可以意捫循取之爲當이며 餘皆倣此라 留七呼者는 此據太陽脈氣強弱하여 以爲一例요 若病盛衰와 更多少는 可隨時調之요 不可以爲定也니 餘皆倣此也라

46) 景岳·小·語譯·較註~

○留十呼 一(張介賓曰) 此는 足六經之刺度也라 出氣曰呼요 入氣曰吸이니 曰十呼七呼之類는 則吸在其中矣니 蓋一呼卽一息也라 但刺有補瀉之異하고 呼吸有先後之分 故로 凡用瀉者는 必候病者之吸而入鍼하여 再吸轉鍼하고 候呼出鍼이요 凡用補者는 而入鍼하여 必因其呼再呼轉鍼하고 候吸出鍼이라 故로 鍼賦에 曰補者先呼後吸하고 瀉者先吸後呼하니 正此義也요 後世令病人咳嗽以代呼하고 收氣以代吸은 氣有出入이니 亦與呼吸相同耳라

47) 王~

○留十呼一 留는 留鍼이요 呼는 指一息이니 卽呼與吸의 時間이요 留鍼十次呼吸의 時間이라 因爲呼吸補瀉의 鍼法은 是吸進鍼而呼出鍼爲瀉法이니 此는 指瀉陽明瀉熱하고 要待病人第十次呼氣時出鍼 故로 稱留十呼라

過一呼

景岳·小·校釋은 “手の 三陰三陽經은 모두 人體의 上半身に 있고, 肌肉이 얇고, 溪谷이 얇으므로 깊게 刺鍼하는 것이 아니고, 經脈이 짧고 氣가 쉽게 쏟아지므로 오래도록 留鍼하는 것이 아니다.”<sup>48)</sup>고 하였고,

楊·小는 “手の 六陰은 손을 따라서 胸에 이르고, 藏에 속하고 府에 絡하며 각 길이가 3尺 5寸이다. 手の 六陽은 손을 따라서 頭에 이르고 府에 속하고 藏에 絡하고 각 길이가 5尺이다. 足の 六陰은足を 따라서 胸에 이르고 藏에 속하고 府에 絡하고 각 길이가 6尺 5寸이다. 足の 六陽은 足을 따라서 頭에 이르고 府에 속하고 藏에 絡하고 각 길이가 8尺이다. 이 手足의 12經脈은 血과 氣가 上下로 環流하는데 足經脈은 길이가 길어서 血과 氣가 環流하는 통로가 멀다. 陰氣는 고로 그 운행 속도가 느리고, 手經脈은 길이가 짧아서 血과 氣가 環流하는 통로가 가깝다. 陽氣는 고로 그 운행 속도가 빠르다. 通路가 가깝고, 經脈의 깊이가 얕으면 刺鍼의 깊이는 2分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氣의 운행이 빠르므로 留鍼의 시간도 1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sup>49)</sup>고 하였다.

(5) 其少長·大小·肥瘦, 以心擦之, 命曰法天之常. 灸之亦然. 灸而過此者得惡火則骨枯脈溢, 刺而過此者, 則

脫氣.

王은 “擦는 取하는 것이다. 鍼術을 行할 때 刺鍼의 깊이와 留鍼시간의 길이는 요컨대 病人의 나이, 키, 체형에 근거한다. 以心擦之는 醫者가 病人의 나이, 키, 체형이 다른 情況에 근거하여 자기의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상응하는 治療를 하는 것이다. 法은 法을 본받는 것으로 順理를 뒤따르는 것이다. 天之常은 자연의 규율을 가리킨 것이다. ‘灸而過此者得惡火’의 뜻은 灸法을 과도하게 운용하면, 病人에게 惡火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sup>50)</sup>고 하였고,

維傑은 “‘以心擦之, 命曰法天之常’의 뜻은 擦는 料로 通하니 추측하라는 뜻이고, 以心擦之는 醫者가 病人의 나이, 키, 체형이 다른 情況에 근거하여 자기의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상응하는 治療를 하는 것이다. 法은 取法이니 즉, 가장 효과적인 것을 뜻한다. 張景岳이 설명하길 ‘天道는 無窮하고, 造化를 예측할 수 없으니 醫者가 마땅히 이를 본받으면 妙策을 無窮하게 사용하게 되니 이름하여 法天之常이다.’ 이것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항상 똑같은 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발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醫者는 당연히 이런 적응능력을 참작하여, 刺鍼의 깊이와 留鍼시간의 길이를 融通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sup>51)</sup>고 하였고,

楊·皇·語譯은 “楊上善이 말하길 擦는 條

48) 景岳·小·校釋 ~ 手之六經은 皆在于上하고 肌肉薄而溪谷淺 故로 刺不宜深이오. 經脈短而氣易泄 故로 留不宜久라

49) 楊·小 ~ 手之六陰은 從手至胸하고 屬藏絡府하고 各長三尺五寸이오. 手之六陽은 從手至頭하고 屬府絡藏하고 各長五尺이오. 足之六陰은 從足至胸하고 屬藏絡府하고 各長六尺五寸이오. 足之六陽은 從足至頭하고 屬府絡藏하고 各長八尺이라. 此는 手足十二之脈이 當經血氣上下環流也니. 然足經은 既長하니 卽血氣環流에 其道遠也. 復是陰氣 故로 其行遲也. 手經은 既短하니 卽血氣環流에 其道近也. 復是陽氣 故로 其行疾也. 以其道近脈淺이면 刺深無過二分也. 以其氣疾 故로 留之不過一呼也라

50) 王 ~ 擦는 取也라. 行鍼時 刺鍼의 深淺과 留鍼의 長短은 要依據病人의 年齡과 高矮와 瘦來定 奪이라. 以心擦之는 指醫生以自己的心數로 依據病人의 情況하여 取其相應的手法이오. 法은 效法으로 導循이라. 天之常은 指自然規律이라. 灸而過此者得惡火는 用灸法超過了 以上的限數하면 病人則產生厭惡火的症狀이라

51) 維傑 ~ 擦는 與料通하니 是料度的意思오. 以心擦之는 就是指醫者應該心中有數하여 因人而異作適當的處理라. 法은 是取法이니 卽仿效의 意思라. 張景岳이 說天道無窮하고 造化莫測하니 醫當效之하면 則妙用無窮이니 命曰法天之常也라하니. 這意思就是指自然界一切現象의 演變이니 是非常複雜의 이나 但人們却有適應周圍環境의 能力이니 醫者應該參酌這種適應能力하여 靈活地掌握鍼刺深淺과 留鍼의 時間久暫라

反이 되며, 取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五時가 같지 않으니 처음 출생하여서는 嬰兒가 되고, 능히 웃을 수 있으면 小가 되고, 6세 以上이면 少가 되고, 18세 以上이면 壯이 되고, 甘세 以上이면 長이 되며, 50세 以上이면 老가 된다. 今時에는 30세 以下면 少, 30세 以上이면 長으로 본다. 皇帝시대에는 7尺 5寸 以上이면 大가 되고 7尺 5寸 以下이면 小라 하고, 現代人의 키는 임의로 선택한다. 天은 理다. 나이, 키, 체형의 변화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므로 하늘에 相合하는 묘미가 되며 이는 天地의 변하지 않는 理致다. 賢人이 임의로 이를 取하여 그 이치에 相合하므로 자연의 이치를 본받는 다고 일컫는다. 灸法 역시 나이, 키, 체형과 氣의 盛衰, 穴의 分寸, 四時의 寒溫, 뜬 횃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야 하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常理를 잃어서 뜬 횃수가 부족하면 厥疾이 낫지 않고, 만약 그 한계를 넘으면 火毒이 몸으로 들어가 모든 뼈의 骨髓가 마르고, 經脈이 潰膿되어 惡火의 病이 된다. 火에는 善함과 惡함이 없으나, 火가 盛하면 손상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惡火라 한다.<sup>52)</sup>고 하였고,

景岳·小·皇·語譯은 “張介賓이 말하길 일반적으로 文理가 어지러운 것을 撩理라 일컫는다. 刺鍼法의 大槩는 모름지기 上文에서 말한 것과 같으나, 사람은 각각 달라서 어린 사람은 氣가 盛하고, 늙은 사람은 氣가 衰하고, 키가 큰 사람은 廣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狹하고, 살찐 사람은 깊게 刺鍼하고, 마른 사람은 얇게 刺鍼하는 것처럼 하나의 例로는 토론 할 수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治療를 해야 한

다. 대개 자연의 이치는 無窮하고, 造化를 예측할 수 없으니 醫者가 당연히 자연의 理致를 본받으면 수많은 方들을 神妙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 이를 法天之常이라 한다. 刺鍼에는 알맞은 鍼의 깊이와 속도가 있고, 灸法에는 알맞은 뜬 횃수와 크기가 있으니 刺法에 補瀉가 있고, 灸法 역시 補瀉가 있다. 무릇 火로써 補하는 것은 母가 그 火를 불어 주는 것이고, 火로써 瀉하는 것은 疾病이 그 火를 불어 주는 것이다. 血이 實하고, 氣가 壅滯하고, 病이 深하고, 肉이 肥厚한 사람은 瀉하는 것이 적합하고, 陽氣가 衰하여 氣가 怯然하고, 元氣가 虛하고, 體力이 弱한 사람은 補하는 것이 적합하다. 背, 腹, 股, 髀는 氣를 받는 통로와 멀고, 세력이 完화된 곳이니 灸의 크기가 크고 뜬 횃수를 많이 하는 것이 적합하고, 頭, 面, 臂, 膈와 羸弱, 幼小한 사람은 灸의 크기가 작고, 뜬 횃수를 적게 하는 것이 그 大法이다. 이를 알지 못하여 灸法을 과도하게 운용하면 無益할 뿐 아니라 도리어 害가 되니 이것이 惡火이다. 그러므로 灸法에서 그 알맞음을 잃으면 骨髓가 마르고, 血脈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며, 刺法이 그 알맞음을 잃으면 元氣를 脫泄하니 모든 것이 사람을 재앙에 이르게 한다. 張志聰이 「終始篇」에서 말하길 肥人을 刺鍼하는 것은 秋冬에 刺鍼하듯이 深刺하고, 瘦人을 刺鍼하는 것은 春夏에 刺鍼하듯이 淺刺하니 이는 사람의 나이, 키, 체형이 각기 다름을 醫者가 자기의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그 刺鍼의 깊이와 속도를 헤아리니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본받는 것이다. 灸法 역시 마찬가지이니, 灸法을 과도하게 운용하는 것을 惡火라고 일컫는다.”<sup>53)</sup>고 하였

52) 楊·皇·語譯~(楊上善曰) 撩는 爲條反이며 取也라 人之生也에 五時不同이니 初生爲嬰兒로 能笑以上爲小로 六歲以上爲少로 十八以上爲壯로 甘以上爲長로 五十以上爲老라 今覽卅以下爲少로 卅以上爲長로 皇帝之時에 七尺五寸以上爲大로 不滿七尺五寸爲小니 今時人之大小는 可以意取之라 天者는 理也라 少長小大肥瘦之變은 變而不恒하며 以合天爲 妙하니 此天地常道也로 賢人은 以意取之하며 妙合其理 故로 曰法天之常也라 灸法도 亦須 賢人少長小大肥瘦와 氣之盛衰와 穴之分寸과 四時寒溫과 壯數多少를 不可卒中하고 失於 常理 故로 壯數不足이면 厥疾不瘳하고 若過其限이면 火毒入身하며 諸骨枯槁하고 經脈潰膿하니 名爲惡火之病이요 火無善惡이나 火壯傷多 故로 名惡火也라

53) 景岳·小·皇·語譯  
張介賓이 曰通俗文理亂을 謂之撩理라 刺法大槩는 雖如上文所云이나 然이나 人有不同하며 如少者盛하고 長者衰하고 大者廣하고 小者狹하고 肥者深하고 瘦者淺하며 有不可以一例論者故로 當以心撩之요 蓋以天道無窮

經은 一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二呼로 해야 합니다. 手三陰, 手三陽經脈은 모두 人體의 上半身을 순행하고 氣를 받는 肺(肺)와 가까워 氣의 운행이 빠르므로 刺鍼의 깊이는 모두 二分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留鍼 시간도 모두 一呼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단 사람이 나이, 키, 체형이 각각 다르므로 醫者は 이러한 疇을 마음속으로 헤아려 治療해야 하는데, 이를 자연의 이치를 본받는 것이라 합니다. 灸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灸法을 과도하게 운용하여 惡火가 발생하면 骨髓가 메마르고 血脈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며, 鍼을 과도하게 운용하면 正氣가 빠져나갑니다.

### 第5章. 鍼灸法 적용의 基準

#### 【原文】

黃帝曰<sup>1)</sup> 夫經脈之大小<sup>2)</sup>와 血之多少와 膚之厚薄과 肉之堅脆와 及臑<sup>3)(1)</sup>之大小<sup>4)</sup>可爲量度乎<sup>4)</sup>이니

岐伯이 答曰 其可爲度<sup>2)</sup>量者<sup>5)</sup>는 取其中度<sup>3)</sup>也<sup>5)</sup>니 不甚脫<sup>4)</sup>肉而血氣不衰也<sup>6)</sup>라

若夫度之人<sup>7)</sup>이 瘠<sup>5)</sup>瘦<sup>8)</sup>而形肉脫者<sup>9)</sup>는 惡<sup>6)</sup>可以度量刺乎<sup>5)</sup>

審<sup>7)</sup>切<sup>8)</sup>循<sup>9)</sup>捫<sup>10)</sup>按<sup>11)</sup>하여 視其寒溫盛<sup>12)</sup>衰<sup>13)</sup>而調<sup>14)</sup>之<sup>14)</sup>니 是謂因適而爲之眞<sup>15)</sup>也<sup>9)</sup>라

#### 【校勘】

1) 黃帝曰: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曰”로 되어 있다.

2) 大小: 『太素·卷5·十二水』에는 “小大”로 되어 있다.

3) 臑: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 “臑”으로 되어 있다.

4) 可爲量度乎: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可以爲度量乎”로 되어 있고, 周本과 『太素·卷5·十二水』에는 “可爲度量乎”로 되어 있다.

5) 中度也: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中度者也”로 되어 있다.

6) 不衰也: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不衰者也”로 되어 있다.

7) 若夫度之人: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는 “若失度之人”로 되어 있다.

8) 消瘦: 『甲乙·卷1·十二經水第7』에는 “瘠瘦”로 되어 있고, 『太素·卷5·十二水』에는 “瘠瘦”로 되어 있다.

9) 而爲之眞也: 『太素·卷5·十二水』에는 “而眞者也”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臑: 膝後, 변곡처, 오금 곁
- (2) 度: 衡量, 헤아릴 탁
- (3) 度: 尺度, 정도 도
- (4) 脫: 失去, 벗을 탈
- (5) 瘠: 瘠瘦, 소갈증 소
- (6) 惡: 何也, 어찌 오
- (7) 審: 察也, 살필 심
- (8) 切: 按捫, 진맥할 절
- (9) 循: 通循, 어루만질 순
- (10) 捫: 切脈, 더듬을 문
- (11) 按: 切按, 누를 안
- (12) 盛: 盛實, 성할 성
- (13) 衰: 虛弱, 쇠할 쇠
- (14) 調: 均勻, 고를 조
- (15) 眞: 慎之固, 진실로 진

#### 【較註】

- (1) 黃帝曰: 夫經脈之大小, 血之多少, 膚之厚薄, 肉之堅脆及臑之大小, 可爲量度乎? 岐伯答曰: 其可爲度量刺, 取其中度也, 不甚脫肉, 而血氣不衰也.

維傑·語譯은 “可爲度量에서 爲는 以로 해석하니, 度量은 多少와 長短의 計算을 설명한 것이다.”<sup>55)</sup>고 하였고,

楊은 “膚는 皮이며, 臑은 臑等이니 덩어리

55) 維傑·語譯~ 可爲度量에서 爲作以解니 度量은 是說計算多少長短이라

진 살이다. 人形이 다른 10종류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中度의 法에 相合하는 度量을 설정한다.<sup>56)</sup>고 하였고,

景岳은 “中度는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을 말한 것이다. 肌肉이 지나치게 수척하지 않고 氣血이 심하게 衰하지 않은 자를 常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수척하여 肌肉이 야위었다면, 유통성 있게 반드시 切·循·摸를 잘 살핀 다음 그 盛衰에 따라 알맞게 調定해야 한다. 그러면 上文에서 말한 것이 후학자에게 법칙이 되어, 그 病情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니, 醫者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손에 應해야 비로소 病을 治療할 수 있다.”<sup>57)</sup>고 하였고,

皇은 “中度는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리킨 것이니 肌肉이 수척하지 않고, 또한 비만하지 않으며, 氣血이 부족하지 않고, 키가 적당하면, 일반인의 度量 기준에 적합하다.”<sup>58)</sup>고 하였고,

楊·小·語譯·校釋은 “『太素·卷五十二水注』에서 中度는 오직 7尺 5寸만을 取하여 中度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체형과 환자의 寒, 熱, 虛, 實을 取해서 알맞은 것을 中度가 되게 하는 것이다.”<sup>59)</sup>고 하였고,

王은 “馬蒔가 말하길 이것은 사람의 肌肉이 지나치게 수척하지 않고, 血氣가 부족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헤아릴 수 있으며, 이는 刺鍼法과 灸法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으니, 기준의 刺鍼法과 灸法으로는 적당한 治療를 할 수 없다.”<sup>60)</sup>고

하였고,

小는 “張志聰이 말하길 五方의 백성은 피부가 거칠은지, 치밀한지, 살이 찢는지, 말랐는지가 다르므로 헤아려서 그 중간 정도의 체형을 取해야 한다.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수척해도, 肌肉이 야위지 않아서, 비록 弱해도 氣血이 부족하지 않으니 기준이 되는 중간 정도의 체형으로 알맞다고 일컫는 것이다.”<sup>61)</sup>고 하였다.

(2) 若夫度之人, 瘠瘦而形肉脫刺, 惡可以度量刺乎.

語譯은 “惡可以度量刺乎에서 惡은 何로 해석하니, 본 구절은 기준이 아닌 사람에게 刺鍼의 깊이를 확정하는 것이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설명한 것이다.”<sup>62)</sup>고 하였고,

王은 “惡可以度量刺乎에서 惡은 切勿이고, 구절의 뜻은 수척하여 肌肉이 야윈 사람은 기준의 鍼刺法을 사용할 수 없음을 가리킨 것이다.”<sup>63)</sup>고 하였다.

(3) 審·切·循·捫·按, 視其寒溫盛衰而調之, 是謂因適而爲之直也.

黃·語譯·校釋은 “『審·切·循·捫·按』에 뜻에서 審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捫은 더듬어 찾는 것이다. 丹波元簡이 말하길 切은 寸口脈을 診脈하는 것이고, 循은 尺膚의 肌肉을 만져 보는 것이니, 대개 經脈의 크고 작음과 피부의 두껍고 얇음은 寸口脈과 尺膚를 通해

56) 楊~ 膚는 皮也요 膈은 膈等이니 塊肉也라 舉人形有十種不同하여 請設度量合中之法也라

57) 景岳~ 中度는 言中人之常度也요 其肌肉不至脫이고 氣血不甚衰者를 及可爲常法之準則이요 若肌體消而形肉脫이면 不得以程度拘泥也 故로 必當審切循摸하여 隨其盛衰而善調之라 然則上文所云者는 特爲後學設規矩耳而因其情하여 適其宜니 必出於心하여 應於手면 斯得病治之眞訣矣라

58) 皇~ 中度는 指中等人的身度니 肌肉不瘠瘦하고 也不肥胖하며 氣血不衰弱이고 高矮適中하면 合乎一般人的度量標準이라

59) 楊·小·語譯·校釋~ 『太素』卷五十二水注에 中度者는 非唯取七尺五寸而爲中度요 亦取肥瘦寒溫盛衰하여 處其適者而爲中度라

60) 王~ 馬蒔가 曰此는 言人之內不脫하고 血氣不衰者를 可以度量而鍼灸之요 反此者는 則不可度量而止可調治也라

61) 小~ 張志聰이 曰五方之民은 有疎理緻理肥脂瘦瘠之不同 故로 可爲度量者取其中度也요 中度者는 卽瘦而不甚脫肉하여 雖弱而血氣不衰하니 是謂適其中而爲度之正也라

62) 語譯~ 惡可以度量刺乎의 惡은 作何解니 本句는 說怎能用失度之人而確定鍼刺의 淺深呢라

63) 王~ 惡可以度量刺乎의 惡은 切勿이요 整句意指形體瘠瘦脫陷者는 切不可用常規法度鍼刺라

가능하다. 가령 肌肉의 단단함과 연약함과 膈肉의 크고 작음 등은 일일이 눌러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4자를 들어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sup>64)</sup>고 하였고,

王은 “審·切·循·捫·按에서 審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切·循·捫·按은 醫者が 病人의 形體, 脈搏, 皮膚등의 부위를 손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sup>65)</sup>고 하였고,

小는 “張介賓이 말하길 반드시 切·循·摸를 잘 살핀 다음 그 盛衰에 따라 알맞게 調定해야 한다. 그러면 上文에서 말한 것이 후학자에게 법칙이 되어, 그 病情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니, 醫者は 반드시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손에 應해야 비로소 病을 治療할 수 있다. 桂山先生이 말하길 切은 寸口脈을 診脈하는 것이고, 循은 尺膚의 肌肉을 만져 보는 것이니, 대개 經脈의 크고 작음과 피부의 두껍고 얇음은 寸口脈과 尺膚를 통해 가능하다. 가령 肌肉의 단단함과 연약함과 膈肉의 크고 작음 등은 일일이 눌러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4자를 들어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sup>66)</sup>고 하였다.

#### (4) 視其寒溫盛衰而調之.

皇·語譯·校釋은 “즉 寒, 熱, 虛, 實이다.”<sup>67)</sup>고 하였고,

王은 “寒溫은 病人의 陰陽과 虛實의 상태를 가리킨 것이고, 盛衰는 病人의 形體와 氣血의

상태를 가리킨 것이다.”<sup>68)</sup>고 하였다.

#### (5) 是謂因適而爲之眞也.

王은 “因適은 적절한 法度에 따라하는 것이고, 眞은 가장 적합한 실제의 방법이다.”<sup>69)</sup>고 하였고,

黃은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서 그 病情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니, 醫者は 반드시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손에 應해야 비로소 病을 治療할 수 있다.”<sup>70)</sup>고 하였고,

語譯은 “韓非子の『解老』에서 말하길 眞은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다. 즉 疾病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治療하는 것이다. 본 구절은 切, 循, 捫, 按을 설명하여 각기 적절하게 刺鍼法을 運用하게 한다.”<sup>71)</sup>고 하였고,

小는 “眞은 毒藥이 眞中の 眞임을 아는 것과 같으니, 각각의 病情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시키고, 이를 治療에 적용하면 治法에 眞訣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72)</sup>고 하였다.

#### 【考察】

##### 〔校勘에 대한 考察〕

‘膈’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太素·卷5·十二水』에서는 ‘膈’으로 보았고, 張·維傑·小·馬·張은 ‘膈’으로 보았다. 楊은 註釋에서 ‘膈. 膈等塊肉也.’라 했고, 본문의 ‘膚

64) 黃·語譯·校釋~ 審은 即審察이고 捫은 即撫摸라 丹波元簡이 曰切謂診寸口이고 循謂循尺膚니 蓋經脈之大小와 膚之厚薄은 當寸尺度之요 如肉之堅脆와 膈之大小는 非一一捫按이면 不能知之 故로 舉此四字하여 以見其義라

65) 王~ 按審審愼이요 切循捫按은 是醫生用手檢查病人形體와 脈搏와 皮膚等部位의 方法이라

66) 小~

張介賓이 曰必當審切循摸하여 隨其盛衰而善調之라 然則上文所云者는 特爲後學設規矩耳而因其情하여 適其宜니 必出於心하여 應於手라야 斯得病治之眞訣矣라

桂山先生이 曰切은 謂診寸口요 循은 謂循尺膚니 蓋經脈之大小와 膚之厚薄은 當寸尺度之요 如肉之堅脆와 膈之大小는 非一一捫按이면 不能知之 故로 舉此四字하여 以見其義라

67) 皇·語譯·校釋~ 寒溫盛衰는 即寒熱虛實이라

68) 王~ 寒溫은 指病人陰陽虛實情況이요 盛衰는 指病人形體氣血의 情況이라

69) 王~ 因適은 依據適當의 法度이요 眞은 最切合實際의 方法이라

70) 黃~ 『類經·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注』에 因其情하여 適其宜니 必出於心하여 應於手라야 斯得病治之矣라

71) 語譯~ 韓非子の 『解老』에 曰眞者는 愼之固也라하니 本句는 說切循捫按하여 各適其宜而愼重地去運用鍼刺라

72) 小~ 眞은 猶知毒藥爲眞之眞이니 言因其各應適而爲治法之眞也라

之厚薄, 肉之堅脆及膈之大小'에서 '膈'은 '肉'의 덩어리로서 한부분을 뜻하기보다는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부위를 뜻하는 '오금 꺾(膈)' 보다는 전체를 뜻하는 '살덩어리 군(膈)'이 文句 전체에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므로 '膈'보다는 '膈'으로 보아야 옳다고 思料된다.

'中度也'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서는 '中度者也'로 보았고, 馬·景岳·張·黃·小·皇·語譯·今釋·維傑은 '中度也'로 보았다. 본문에서 '中度者也'와 '中度也'는 의미적으로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지만, 皇이 '中度, 指中等人的身度.'라 했고, 楊·小·語譯·校釋이 '中度者, 非唯取七尺五寸而爲中度.'라 한것에서 본문의 '中度也'에는 '中度者也'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文句 전체에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中度者也'로 보아야 옳다고 思料된다. 또한 下句의 '不衰也'도 같은 맥락에서 '不衰者也'가 옳다고 思料된다.

'若夫度之人'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 『太素·卷5·十二水』에서는 '若失度之人'으로 보았고, 馬·張·景岳·維傑·小는 '若夫度之人'으로 보았다. '若夫度之人'과 '若失度之人'은 의미적으로 前後文句에 무리는 없지만, '若夫'의 뜻이 접속사로서 화제를 제시하는 것을 나타내고, 下句나 下段의 첫머리에 쓰이며 '~에 이르러'라고 해석하는 것이므로 '若夫度之人'은 前後文句에서 전환적 내용이 없는 까닭으로, 의미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하려면 '若失度之人'으로 보아야 옳다고 思料된다.

'消瘦'에 대하여 『甲乙·卷1·十二經水第7』, 馬·景岳·張·黃·小·皇·語譯·今釋은 '瘠瘦'로 보았고, 『太素·卷5·十二水』에서는 '瘠瘦'로 보았으며, 維傑은 '消瘦'로 보았다. '瘠'은 '두통·소갈증', '瘠'은 '(몸이)야위다. 수척하다', '消'는 '사라질·소진함'의 뜻으로, '瘠'·'消'는 의미적으로 통하나, '瘠'는 '瘠'·'消'와 의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瘠'는 '消'의 假借字로서 뜰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므로 '瘠瘦'속에서의 '瘠'·'消'·'瘠'는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 [較註에 대한 考察]

'是謂因適而爲之眞也'는 '이를 적당함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治療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며, '眞'에 대한 註釋에서 王은 '眞, 最切合實際的方法.(=①)이라 했고, 語譯은 '眞者, 慎之固也.'(=②)라 했으며, 小는 '眞猶知毒藥爲眞之眞, 言因其各應適而爲治法之眞也.'(=③)라 했다. 註釋에서 '眞'은 ①·③에서 '最切合實際的方法'이라는 뜻으로 통하고, ②에서는 '慎之固'라 하여 ①·③과 ②의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最切合實際的方法'·'慎之固'의 뜻이 서로 相異하게 註釋한 것처럼 보이지만, '是謂因適而爲之眞也'속에서의 '眞'의 의미는 ①=②=③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經脈이 크고 작음, 血의 많고 적음, 皮膚의 얇고 두꺼움, 肌肉의 단단함과 연약함, 膈肉의 많고 적음 등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면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肌肉이 지나치게 수척하지 않고 氣血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수척하여 肌肉이 야위었다면 어떻게 헤아려 刺鍼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따라서 寸口脈을 짚어 보고 尺膚를 관찰하며 皮膚肌肉을 눌러 자세히 살핀 다음, 病人의 寒熱虛實을 살펴서 治療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治療하는 것이라 합니다.

#### IV. 意 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人體의 全身內外를 끊임없이 循環하는 十二經脈은, 밖으로는 十二經水와 相合하고, 안으로는 五臟六腑에 이어져 있습니다. 무릇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澗水, 淮水, 溧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의 12水인 十二經水는 그 水量의 많고 적음, 깊고 얇음, 폭, 水源에서 河口까지의 길이가 각기

다르며, 마찬가지로 五臟六腑의 위치의 높고 낮음, 형태의 크기, 음식을 받아들이는 量도 각기 다른데, 兩者는 어떤 상응관계가 있습니까? 무릇 十二經水는 그 源流에서 물을 받아 들어 땅을 灌溉하고 바다로 흐르게 하며, 五臟은 神, 氣, 魂, 魄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밖으로 표현하며, 六腑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소화시키고 그 精微之氣를 전신으로 퍼트리며, 經脈은 血을 받아들여 이를 運行시킵니다. 이들을 결합하여 治療에 運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刺鍼 깊이의 정도와 뜸을 뜨는 횟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아 測定할 수가 없고, 땅은 지극히 넓어 測量할 수 없다 함은 이를 말함입니다. 무릇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 東西南北上下의 六합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므로 사람의 몸은 실로 알 수가 없으며, 밝혀 내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릇 보통 사람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눈으로 보거나 밖에서 자로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능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五臟의 견실함과 허약함, 六腑의 크고 작음, 水穀의 많고 적음, 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및 十二經脈 中에 血이 많고 氣가 적은지, 血이 적고 氣가 많은지, 氣와 血이 모두 많은지, 아니면 氣血이 모두 적은가 하는 데에는 모두 일반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또한 疾病을 治療할 때는 각각의 經脈의 길고 짧음, 血의 淸濁, 氣의 많고 적음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상응해야 하며, 刺鍼의 깊이와 뜸뜨는 횟수를 적당히 운용하여 그 經氣를 조절시킵니다. 오직 이래야만 비로소 각각 經脈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의 말을 들은 건대 듣기에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나,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니, 상세하게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天地自然

과 상응하고 陰陽의 規律과 상응하는 까닭이므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足太陽經은 밖으로는 淸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膀胱에 이어져 있어서 水道를 통하게 합니다. 足少陽經은 밖으로는 渭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膽에 이어집니다. 足陽明經은 밖으로는 海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胃에 이어집니다. 足太陰經은 밖으로는 湖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脾에 이어집니다. 足少陰經은 밖으로는 汝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腎에 이어집니다. 足厥陰經은 밖으로는 澗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肝에 이어집니다. 手太陽經은 밖으로는 淮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小腸에 이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水道가 나옵니다. 手少陽經은 밖으로는 溲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三焦에 이어집니다. 手陽明經은 밖으로는 江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大腸에 이어집니다. 手太陰經은 밖으로는 河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肺에 이어집니다. 手少陰經은 밖으로는 濟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에 이어집니다. 手心主(手厥陰)는 밖으로는 澮水와 配合되고, 안으로는 心包絡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五臟六腑와 十二經脈과 十二經水와의 관계입니다. 무릇 이들 五臟六腑와 十二經水는 밖으로는 源泉이 있고 안으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內外가 서로 통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는데, 人體의 十二經脈 역시 그러합니다.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며, 人體의 허리 이상은 하늘이 되고, 허리 이하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十二經水에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水 以北을 陰이라 하고, 湖水 以北을 陰中의 陰이라 하며, 澮水 以南을 陽이라 하고, 河水 以北에서 澮水까지를 陽中의 陰이라 하며, 溲水 以南에서 江水까지를 陽中의 太陽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天地의 사이, 東西南北上下의 六合에 안, 즉 一州의 땅에서 살아가니 반드시 象이 되어 一州의 陰陽이 相合하여 들어맞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부 지역의 陰陽으로 例를 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天地自然의 上下四旁에 사람과 天地가 함께 상응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이 상응을 한다는데, 兩者의 길이, 깊이 및 水와 血의 많고 적음이 각기 다르니, 이런 兩者를 결합하여 刺鍼할 때 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足陽明胃經은 五臟六腑의 바다와 같아서 十二經脈 中에는 이 經脈이 가장 크고 血이 많으며 氣가 盛하고 熱의 기세가 盛한 곳이므로 이곳에 鍼을 놓을 때는 깊게 찌르지 않으면 邪氣를 홀트릴 수 없으며, 鍼을 꽂아 두지 않으면 邪氣를 내몰 수 없습니다. 足陽明胃經은 六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十呼吸間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足太陽膀胱經은 五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七呼로 해야 합니다. 足少陽膽經은 四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五呼로 해야 합니다. 足太陰脾經은 三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四呼로 해야 합니다. 足少陰腎經은 二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三呼로 해야 합니다. 足厥陰肝經은 一分 깊이로 鍼을 놓고 留鍼 시간을 二呼로 해야 합니다. 手三陰經脈과 手三陽經脈은 모두 人體의 上半身을 순행하며 心臟과 肺에서 血과 氣를 받으므로, 氣를 받는 通路(肺)와 가까워서 氣의 운행 속도가 빠르므로 刺鍼의 깊이는 모두 二分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留鍼시간도 모두 一呼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얇게 鍼을 놓고 빨리 鍼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일 뿐이므로 환자의 나이, 키, 체형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醫者は 이러한 病情을 고려하여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가장 적당한 刺鍼의 깊이와 속도로서 治療해야 하며, 이를 자연의 이치를 본받는 것이라 합니다. 灸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灸法을 부족하게 施術하면 厥疾이 낫지 않으며, 과도하게 施術하면 火毒이 몸으로 들어가서 모든 뼈의 骨髓가 마르게 되고, 經脈이 潰膿되어 惡火의 病이 됩니다. 본래 火는 善하고 惡함이 없으나, 火가 盛하면 손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刺鍼法을 과도하게 施術하면 生命의 근원인 正氣가 빠져나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人體 十二經脈

의 크고 작음, 血의 많고 적음, 皮膚의 얇고 두꺼움, 肌肉의 단단함과 연약함, 脛肉의 많고 적음 등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을 헤아려려고 하면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肌肉이 지나치게 수척하지 않고, 正氣와 血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수척하여 肌肉이 야위었다면,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숫자로는 刺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일이 寸口脈을 짚어 보고 尺膚를 관찰하며 皮膚肌肉을 눌러 자세히 살핀 다음에, 病人의 陰陽, 虛實의 상태와 形體, 氣血의 상태를 살펴서 그에 따라 不調를 조정하는 治療해야 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治療하는 것이라 하고, 또한 臨機應變이라고도 합니다.

## V. 結 語

十二經水에 대한 各家註를 비교 按擦하고, 譯解한 결과 그 주요한 내용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1章에서는 十二經水를 十二經脈의 氣血運行에 비유하여 十二經水는 淸水, 渭水, 海水, 湖水, 汝水, 澗水, 淮水, 溲水, 江水, 河水, 濟水, 漳水의 十二水를 뜻하는 것이고, 十二經脈의 氣血運行은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와의 相應관계로 설명하였다.

2. 第2章에서는 天地와 人의 相應관계에는 일반적인 規律이 있음을 人體의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氣血多少로서 설명하였다.

3. 第3章에서는 天地와 人體와의 相應관계와 陰陽과 人體와의 相應관계를 설명하였다.

4. 第4章에서는 天人相應에 따르는 十二經脈 各各의 刺入깊이와 留鍼시간에 一定規律이 있음을 설명하고, 나아가 灸法도 마찬가지임을 설명하였다.

5. 第5章에서는 鍼灸法의 적용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鍼灸施行時에는 중간 정도의 체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病人의 키, 나

이, 체형에 따라서 鍼灸를 응용하고, 寒熱虛實에 따르는 太過와 不及도 설명하였다.

6. 十二經脈에 十二經水와 五臟六腑를 配合하면 아래와 같다.

足太陽經脈은 外合於淸水 · 內屬於膀胱하고, 深五分 · 留七呼로 하였다.

足少陽經脈은 外合於渭水 · 內屬於膽하고, 深四分 · 留五呼로 하였다.

足陽明經脈은 外合於海水 · 內屬於胃하고, 深六分 · 留十呼로 하였다.

足太陰經脈은 外合於湖水 · 內屬於脾하고, 深三分 · 留四呼로 하였다.

足少陰經脈은 外合於汝水 · 內屬於腎하고, 深二分 · 留三呼로 하였다.

足厥陰經脈은 外合於澗水 · 內屬於肝하고, 深一分 · 留二呼로 하였다.

手太陽經脈은 外合於淮水 · 內屬於小腸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手少陽經脈은 外合於澗水 · 內屬於三焦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手陽明經脈은 外合於江水 · 內屬於大腸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手太陰經脈은 外合於河水 · 內屬於肺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手少陰經脈은 外合於濟水 · 內屬於心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手心主經脈은 外合於澗水 · 內屬於心包하고, 深二分 · 留一呼로 하였다.

7. 『靈樞·經水篇』의 내용을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문맥상 수정되어야 할 구절은 다음과 같다.

2章의 在此는 色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外可는 其生可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4章의 其刺深은 其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5章의 膈은 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中度也는 中度者也로, 不衰也는 不衰者也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若夫度之人은 若失度之人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本篇은 十二經水가 人體의 十二經脈 氣血運과 相應함이 天人相應思想과 附合됨을 기술하였고, 十二經水의 運用方法에 따라 鍼灸法의 적용기준과 鍼灸施術의 방법을 刺鍼 깊이와 留鍼時間, 그리고 灸의 회수와 크기로 설명하였다.

## VI. 參考文獻

1. 王辛卯 편『黃帝內經(中醫經典通釋)』:河北科學技術出版社:1996.pp 47~49
2. 裴秉哲『今釋黃帝內經靈樞』서울:成輔社設傳統醫學研究所:1995.pp 167~173
3. 楊維傑 편『黃帝內經靈樞』서울:大城出版社:1985. pp 154~161
4. 張介賓『類經』서울:大星文化社:1989. pp 212~216
5. 郭靄春『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서울:醫聖堂:1993. pp 142~147
6. 晉·皇甫謐『鍼灸甲乙經校釋』서울:醫聖堂:1993. pp 58~69
7.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上)』河北:人民衛生出版社:1995. pp 289~299
8. 小獸戶『迎秋講義』大阪:オリエント出版社:1988. pp 741~760
9. 馬蒔·張志聰『黃帝內經靈樞』北京:北京中西醫學研究總會藏版:1988.pp 140~145
10.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 pp 47~52
11. 黃元御『黃元御醫書十一種(上) 靈樞懸解』河北:人民衛生出版社:1990.pp 487~489
12. 丹波元簡 편『靈樞識』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 pp 655~660
13. 藤田六朗『經絡學入門』大阪:創元社:1985. pp 133~190
14. 方富雄『黃帝內經靈樞』大阪:柳原書店月販部:昭和54. pp 128~133
15. 裴秉哲『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서울:成輔

- 社：1975. pp 140~145
15. 清·陳夢雷 편『醫經註釋(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pp 137~142
  16. 洪元植 『黃帝內經解釋(靈樞)』서울：高文社：1985. pp 86~90
  17. 洪元植 편『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5. pp 99~101
  18. 黃龍祥 『黃帝鍼灸甲乙經』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1990. pp 48~52
  19. 晉·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台北：宏業書局有限公司：中華65. pp 13~15
  20. 柳太植『素問·繆刺論에 對한 研究』서울：博士學位論文：1997.
  21. 李相權『素問·六元正紀大論 中 六氣政令에 對한 研究』서울：博士學位論文：1998.
  22. 鄭憲瑩『素問·調經論에 對한 研究』서울：博士學位論文：1995.
- 津科學技術出版社：1991.
  2. 金元中『虛辭辭典』서울：玄岩社：1989.
  3. 金賢濟, 洪元植『韓醫學辭典』서울：成輔社：1983.
  4. 東亞國語辭典研究會『東亞새국어사전』서울：東亞出版社：1992.
  5. 民衆書館編輯局『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1984.
  6. 朴甲洙, 金鎮英, 宋鎮燮『漢文 I · II』서울：志學社：1999.
  7. 商務印書館編輯部『辭源』香港：商務印書館：1987.
  8. 李熙昇 편『國語大辭典』서울：民衆書林：1990.
  9. 任應秋 편『黃帝內經章句索引』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
  10. 張登本, 武長春 편『內經辭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11. 張三植 편『大漢韓辭典』서울：集文堂：1978.

## Ⅶ. 參考辭典類

1. 郭靄春 편『黃帝內經辭典(上·下)』天津：天